

원주시역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2025. 04.

연구책임자 : 오영교 교수(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연 세 대 학 교 원 주 산 학 협 력 단

제 출 문

원주시역사박물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원주시역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4월 8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단장 기재홍

| |
|-----------|
| 참 여 연 구 진 |
|-----------|

◎ 연구책임자

오영교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연구원

이상순 (연세대학교 강사)

이충민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학예연구사)

◎ 자문

박종수 (원주향교 장의, 전 원주시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원주열교육관 팀장, 전 원주시역사박물관장)

이진형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목 차

연구결과 핵심

| | |
|------------------------------|----------|
| 제1장 과업 내용 | 1 |
| I. 과업 배경 및 목적 | 1 |
| II. 과업 대상 및 범위 | 2 |
| 1. 과업 기본정보 | 2 |
| 2. 과업 범위 | 2 |
| III. 과업 내용 | 2 |
| 제2장 현황 및 사례 | 4 |
| I. 원주의 역사·문화 현황 개관 | 4 |
| 1. 원주의 역사 개관 | 4 |
| 2. 원주 문화의 상징 | 4 |
| 3. 역사도시 원주1 | 5 |
| 4. 역사도시 원주2 | 7 |
| 5. 원주문화 정체성과 감영 | 7 |
| 6. 원주시의 발전과 지역학의 정립 | 8 |
| 7. 원주시 도시 현황 분석 | 9 |
| 8. 원주시의 도시개발과 문화인프라 구축 | 10 |
| II. 박물관 현황 | 12 |
| 1. 일반현황 | 12 |
| 2. 조직 및 인력 | 14 |
| 3. 시설 | 18 |
| 4. 예산 | 20 |
| 5. 소장품 | 21 |
| 6. 전시 | 21 |
| 7. 출판 | 27 |
| 8. 교육 및 문화행사 | 30 |
| III. 타 기관 사례 | 35 |
| 1. 선정 배경 | 35 |
| 2. 시사점 | 35 |

| | |
|---|-----------|
| 3. 각 도시 및 박물관 현황 | 36 |
| 제3장 환경 분석 | 44 |
| I. 박물관의 역할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 | 44 |
| 1. 박물관의 역할 변화 | 44 |
| 2. 박물관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 검토 | 46 |
| 3. 박물관 서비스의 질적 전환 | 46 |
| 4. 박물관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방식 | 47 |
| II. 환경 분석(PEST 분석) | 48 |
| 1. 정책환경 | 48 |
| 2. 경제환경 | 49 |
| 3. 사회환경 | 50 |
| 4. 기술환경 | 51 |
| III. SWOT 분석 | 52 |
| 1. 강점 | 52 |
| 2. 약점 | 52 |
| 3. 기회 | 53 |
| 4. 위협 | 55 |
| 제4장 이전 계획 및 기존 시설 개선 방안 | 57 |
| I. 이전의 당위성 | 57 |
| II. 이전시행방안 | 60 |
| III. 기존 시설 개선 방안 | 63 |
| 제5장 원주시역사박물관의 중장기 발전 방안 | 65 |
| I. 원주시역사박물관의 비전과 정책 목표 도출 | 65 |
| 1. 비전 및 전략과제 도출 | 65 |
| 2.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평가지표 | 67 |
| 3. 원주시역사박물관 예산활용과 평가지향 | 69 |
| II. 박물관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과 원주시역사박물관의 발전방향 | 71 |
| 1. 박물관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 변화 | 71 |
| 2. 인구감소·지역소멸시대의 박물관 | 72 |
| 3. 디지털 전환시대의 박물관 | 75 |
| 4. 지속가능한 박물관의 가치와 역할 | 75 |
| III. 중장기 이행 계획 | 82 |

| | |
|--|-----------|
| 1. 내부적 과제 및 개선 요구 | 82 |
| 2. 원주의 역사유산을 통한 원주 역사정체성 탐구를 위한 연구거점 | 83 |
| 3. 원주 문화자산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역문화 구심체 | 84 |
| 4. 원주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공유를 위한 문화허브 | 85 |
| 5. 원주시역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 | 88 |
| | |
| 제6장 종합 제언 | 92 |

연구결과 핵심

- 원주시역사박물관 비전 -

비전1. 원주 문화자산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역문화구심체

비전2. 원주의 역사유산을 통한 역사정체성 탐구를 위한 연구거점

비전3. 원주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공유를 위한 문화교육허브

- 원주시역사박물관 전략과제 -

1. 박물관 이전계획 수립 및 시행

- 현재 봉산동에 위치한 원주시역사박물관에서는 부지 및 시설이 갖는 명확한 한계성 때문에 박물관 관련 업무의 개선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관람객 및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전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이전신축에 따른 조직 및 인력구성에 대한 개편과 업무분장도 새롭게 정비하고, 조직을 보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이 이전신축계획을 잘 세워 장기 계획으로 실행한다면,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기관으로서 거듭나는 원주시역사박물관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봉산동 소재 원주시역사박물관 부지와 건물은 박물관 이전 뒤 현재 박물관 전시실 가운데 하나인 현석실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전통가옥동과 함께 현석 최규하 기념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중부권 5대 역사도시로서 원주시가 가지는 위상을 적극 고려하여 국립박물관 기능의 결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조직 개편 추진

- 2024년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반환 등 원주시 문화유산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국가적으로도 '문화재' 개념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학예연구팀과 문화유산팀으로 조직된 박물관 업무체계를 효율화하여 장기적으로 문화유산팀을 시 본청으로 조직 승격·편입시킬 필요가 있음.
- 박물관은 전시, 연구, 교육의 박물관 본연의 업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학예연구팀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박물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3. 인력충원 및 적절한 예산 배정

- 2024년 현재 원주시역사박물관 예산구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유산분야임.
- 원주시 문화유산 전반의 관리 업무에 비해 위축되어 있는 박물관 고유기능 강화를 위해 학예연구업무에 대한 예산 및 인력확대가 필요함. 이를 통해 역사문화도시 원주시의 정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원주시 향후 계획으로 캠프롱 부지 내 과학관, 미술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문화시설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들 시설과의 연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예연구팀의 인력충원과 적절한 예산배정을 통해 전시, 연구, 교육 기능의 강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분관 활성화

- 원주시역사박물관 본원과 함께 원주시 관내 각지에서 운영중인 분관 운영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관 영역의 이전계획 시행 이전에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학예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관 영역의 적극적인 활용이 강조되어야 함.
- 현재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박물관 학예연구인력이 배치되어 종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5. 원주 대표 문화 허브로서 학예 기능 강화, 연구사업 확충

- 원주시를 대표하는 문화허브로서 원주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고취를 위해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학예연구 기능의 강화와 지역 연구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읍면동리의 문화단위성 제고를 위해 면지, 동지 등 지역 세부 단위를

주제로 하는 연구사업과 편찬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6.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 활성화

- 원주시는 시군통합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서 도농 복합의 넓은 영역을 관할하고 있음. 따라서 도심에 집중된 문화기능의 분산과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7.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시행

- 현재 원주시역사박물관이 지닌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박물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박물관 사업을 향유하는 애호가층을 중심으로 시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제1장 과업 내용

I. 과업 배경 및 목적

1. 최근 박물관 내외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여러 현안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주시역사박물관의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여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연동 계획임.
2. 원주시역사박물관은 2000년 개관 이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부재하였음. 이에 따라 그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제반 사회·문화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전략 및 발전방안을 수립할 요구가 대두됨.
3. 원주시역사박물관은 5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강원도 최대도시이자 중부권 중심 도시로서 점차 증가하는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도시 정체성 및 자긍심을 전파하는 복합문화시설의 운영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함.
4. 국가유산 지광국사현묘탑의 법천사지 이전을 실현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 역사문화 자원의 콘텐츠를 다듬고 보존하는 중부권 대표 역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 함.
5. 수 천 년 동안 원주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 역사문화와 인물의 업적을 체현한 전시관을 다수 관장하고, 운영과 전시를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의 정수를 함양하고 그 위상을 정립하려 함.
6. 원주시역사박물관 이전을 위한 내부적 점검 및 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박물관 시설·운영의 개선·확충, 공립 박물관 평가 인증평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7. 대한민국 중부지역을 대표하는 원주시의 위상에 걸맞게 원주시역사박물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교육 및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고자 함.

II. 과업 대상 및 범위

1. 과업 기본정보

- 가. 과업명 : 원주시역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나. 과업수행기간 : 2024. 10. 11. ~ 2025. 04. 08.(착수일로부터 180일)
- 다. 연구책임자 : 오영교 교수(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2. 과업 범위

- 가. 시간적 범위 : 2025년 ~ 2029년(5개년)
- 나. 공간적 범위 : 원주시역사박물관 및 분관(강원감영, 조엄기념관, 임윤지당선양관, 반곡역사관,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포함)
- 다. 내용적 범위
 - 1) 원주시역사박물관 현황 및 환경 분석
 - 2) 원주시역사박물관 중장기 발전 미션, 전략, 로드맵 제시
 - 3) 원주시역사박물관 연차별 추진관제 및 중장기 예산관리 계획 수립
 - 4)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

III. 과업내용

1. 원주시역사박물관 현황 및 환경 분석

- 가. 박물관 정책 환경의 변화 및 대내외 환경 변화 분석
- 나. 원주시역사박물관 개관 이후 각 분야별 성과 및 현황 분석
 - 1) 소장품, 전시, 조사연구, 교육, 문화행사, 홍보, 관람객 현황 등
 - 2) 시설, 인력, 조직, 예산 등
- 다. 중장기 발전 방안의 방향성 도출

2. 원주시역사박물관 중장기 발전 미션, 전략, 로드맵 제시

- 가. 박물관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한 목표 및 전략과제 도출
- 나. 각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1) 전시 기능 강화 방안

- 2) 교육, 체험, 교육 프로그램 제시
 - 3) 조사 및 연구 기능 강화
 - 4) 운영 분야: 조직·인력·제도 등
 - 다. 공립 박물관 평가인증제를 위한 평가지표에 부합하는 내용 제시
3. 박물관 이전 계획 및 기존 시설 개선 가능 방안 제시
- 가. 박물관 이전 계획 자료 반영
 - 나. 기존 시설 공간 활용 분석과 문제점 도출 후 개선 방안 제시
4. 연차별 추진과제 및 중장기 예산관리 계획 수립
- 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박물관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 방안
 - 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연차별 추진과제 선정 및 사업비 산출

제2장 현황 및 사례

I. 원주의 역사·문화 현황 개관

1. 원주의 역사 개관

가. 전통이 흐르는 **역사문화 도시**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기억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물리적 대상과 장소 속에 복잡하게 얹혀있는 도시를 의미

나. **원주**는 고대사 이래 주요 민족사의 여러 사안이 전개되고 독특한 문화자산이 숨 쉬는 국내도시 중 손꼽히는 **역사문화도시**임.

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공동체의 자체 통사를 구성할 만큼** 다양한 역사, 인물, 문화콘텐츠를 보유한 곳

라. 원주역사의 맥락

- 통일신라 직후 복원소경
- 고려 불교문화의 정수
- 1395년 강원감영 설치 (500년 동안 강원도의 수부도시)
- 군사도시 (1군사령부 소재)
- 생명사상 (최시형, 장일순)
- 신용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 원동성당 (지학순주교)
- 토지문학관 (박경리)
- 강원 최대도시 (현 인구38만명, 혁신도시, 기업도시)

<표 1> 원주역사의 맥락

마. 원주는 도시의 구성원들에 의해 고유한 전통을 보존하고 갈고 닦기 위한 내적 성찰과 자각이 일찍이 전개된 곳

2. 원주 문화의 상징

가. 원주의 역사와 문화 속에 체현된 이미지를 발견하고 확립해서 명료하고 강력하게 외부인들에게 원주의 문화를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증적, 실천적,

실용적 성격을 지님.

나. 자연과 사물,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물이 특별한 존재. 바로 **문화상징의 콘텐츠와 내용은 각별히 정리되어야 할 대상**

다. 원주는 천혜의 자연이 빚어낸 도시로서, **치악산은 원주의 모태**로 여겨지면 첫째의 문화상징으로 제시. 원주가 진정 생명도시, 건강도시,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악산을 잘 보존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치악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징화 작업 중요함.

라. 원주의 대표적인 문화상징

| | |
|------|--|
| 문화유산 | 상원사, 구룡사, 법천사지, 거둔사지, 강원감영, 영원산성, 지광국사현묘탑, 지광국사현묘탑비, 거둔사지삼층석탑, 흥법사지삼층석탑, 용소막성당 |
| 인물 | 원천석, 원충갑, 조엄, 임윤지당, 문창모, 최규하 |
| 기타 | 옷(칠)공예,한지, 평설화 |

<표 2> 원주의 대표적인 문화상징(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조사)

3. 역사도시 원주 1 -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가. 원주의 역사환경 및 자연·지리환경

- 원주는 국가사에 의한 편년 구분에서 중요한 위상을 지님.
- 2026년은 강원정도 631주년, 복원경 설정 1348년, 원주시 설립 71주년이 되는 해임. 원주는 통일신라시대 6소경의 하나인 복원경이, 조선시대에는 500년 동안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감영이 소재한 곳.
- 원주는 중앙지역과 한반도 동남부 지역과의 문화교류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 남한강의 수로와 여주·양평으로 연결되는 육로의 발달로 서울과의 통교가 손쉬운 교통상의 이점이 존재함.
- 지정학적으로 서울과 가까워서 지역 세력들이 본관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상경종사(上京從士) 하기에 편리하였고, 다른 지역 출신 사대부들에 의한 낙향(입거)이 잦은 지역임.
- 원주는 국내도시 중 손꼽히는 역사도시. 역사도시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기억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물리적 대상과 장소 속에 복잡하게 얹혀있는

도시를 의미함.

- 섬강과 원주천으로 인해 기름진 충적평야와 완만한 구릉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아주 오래전 부터 인류생활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짐.

나. 원주의 구석기시대 유적

- 지정면 월송2리 섬강의 동쪽 강기슭
- 월송4리와 법천3리 좀재마을
- 지정면 보통리
- 안창리
- 부론면 흥호리 등에 산포

다. 원주의 신석기시대 유적

- 부론면 법천리에서 빗살무늬토기와 찌개 등 뚝배기가 수습
- 문막 동화리유적
- 원주 기업도시·혁신도시 발굴조사에서 빗살무늬토기편 출토

라. 원주의 청동기시대 유적

- 부론면 노림리 고인돌유적
- 법천리 부론초등학교 주변유적
- 판부면 서곡리유적
- 문막읍 궁촌리유적 등이 존재
- 태장동 유적에서 민무늬토기와 붉은간토기, 화살촉 등이 출토되었고, 위석식 노가 설치된 장방형계 주거지가 확인됨.

마. 원주의 철기시대 유적

- 2008~2010년에 걸쳐 원주 혁신도시 발굴조사에서 확인
- 삼국시대 유적인 법천리 고분군은 양모양 청자(羊形靑磁)를 비롯해 청동 자루술(靑銅鐏斗), 등자(鐙子) 등의 유물이 매장유산으로 보고됨.

바. 원주의 고려시대 유적

- 사찰유적 : 법천사, 거돈사, 법흥사 등 주요 사지
- 불교유산 : 상기 사지의 국보급 석탑과 불탑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유산이 존재함.

4. 역사도시 원주 2 –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가. 조선시대~일제강점기의 강원감영

1) 강원감영의 의미

- **강원감영은 원주사회 공동체의 기억이 누적된 실체적인 건축물 중 가장 큰 위상을 지님**
- 행정·문화·정치·경제의 중심지로서 온갖 영화와 번성을 누렸을 **조선 500년 관동 수부(關東 首府)도시로서의 흔적임.**
- 강원감영이 감영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던 시기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실상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정치와 문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함.

2) 강원감영의 운영

- 원주는 도내 계수관(界首官) 가운데 가장 큰 고을이며, 한성부에서부터 도계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임. 원주의 지정학적 조건에 따른 행정상의 편의, 호구와 물산 곧 경제적 자립 조건의 충족에 따라 감영을 설치 및 운영함.
- 조선의 지방제도는 한말기 23부제와 13도제 시행과정에서 **춘천으로 관찰부가 이전**되었음. 원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이 제기하고, 원주 유생들이 집단 상경하여 원주로의 수부도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1896년 감영이 완전히 폐쇄**되었음.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이 도청소재지인 춘천에 집중되는 정책이 전개되었음.

나. 현대의 강원감영

- 1952년 오늘날 강원감영지에서 피난도정이 잠시 운영됨.
- 1953년 이후 1군사령부와 예하 부대의 집중적인 주둔으로 군사도시 이미지 형성
- 지역을 관통하듯 백운산과 치악산을 연결하는 군사도로가 개설되고 A·B·C도로로 명명됨. 원주의 역사와 전통이 끼여 들어갈 여지가 없었음.
- 1990년대 지방자치 시행 이후에 원일로·중앙로·평원로라는 명칭을 되찾음.
- **2025년은 원주시 설정 70주년**(1955년 원주시로 승격), **시·군통합 30주년**(1995년 시·군통합)

5. 원주의 문화정체성과 강원감영

- **강원감영은 원주의 정신과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 감영 자체의 공간적 복원이 아닌 문화사적 의미를 충실히 가져야 함.
- 강원감영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 역사적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함. 주민을 위한 기념공간이 될 때 강원감영은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원주의 유구한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긴 강원감영과 같은 역사적 자산에 대해 단순한 국가유산으로 취급하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의 일상적인 환경 자체로 간주하고 다각적으로 보전과 공존을 모색하는 지혜를 모아야 함.
- 지역의 전 구성원들이 감영문화를 지역특성이 반영된 종합 문화로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다양한 활용, 자원화 노력의 모든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보존 계승 운동이 전개되어야 함.

6. 원주시의 발전과 지역학의 정립

가. 배경

- 1990년대 후반 들어 전국적으로 지방화 시대와 지방문화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지방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에 대해 이론적 체계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역학 연구소가 앞다투어 건립** 됨.
- 학술사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학문적 경향으로 일상사·미시사·여성사의 활성화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학술적 담론의 다양화와 의미 부여라는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임.

나. 의미

-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기반 만들기** 즉, 지역을 살아있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공동체로 기능하도록 되살리는 몸짓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금까지 중앙에서 독점하던 학술문화운동과 정책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며 지역민들의 인식전환과 역량 증진의 결과로도 볼 수 있음.
- 지방자치 시대에서 **고유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경쟁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라는 지적, 다시 말해 지역만의 어떤 특징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여타 경쟁지역 가운데 묻힐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지적되고 있는 바, 바로 **지역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 무엇보다 자기 지역을 제대로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에 참된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고 본다면, 지역학연구와 연구기관의 제반 활동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견인해 낸다는 점에서 확실히 바람직한 현상
- 오늘날 원주는 융복합시대, 21세기 세계화 과정속에서 주변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과정, 환경과의 연계성을 포괄하여 지역의 질적 발전과 수준 제고를 위해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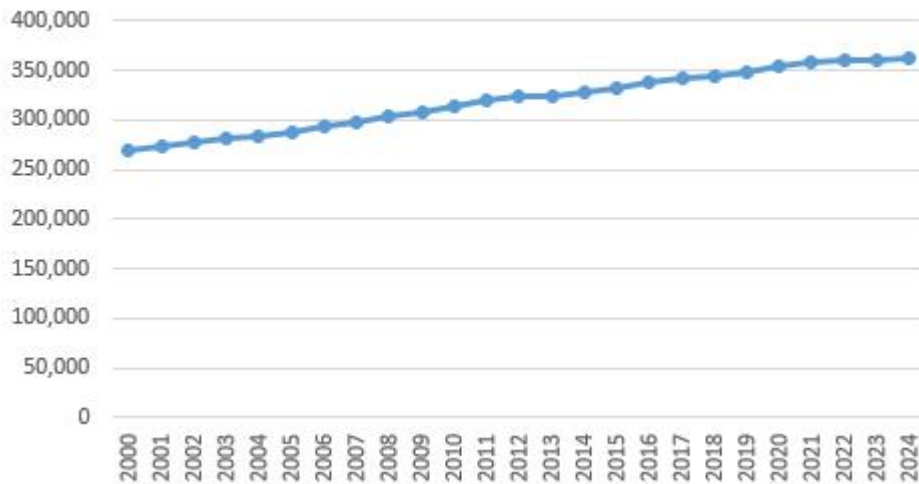
은 고민들이 흐르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

- 6) 원주의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문화활동, 지역민의 자부심과 정주성을 드높이기 위한 중요한 다짐이 있었음을 전개되었음.

7. 원주시의 도시 현황과 분석 및 평가

가. 도시 현황

- 원주는 한국전쟁으로 인구와 시설이 급증하여 1955년에 읍에서 시로 승격했고, 1995년에 지방행정제도의 개정에 따라 도농복합도시로 확대됨.
- 2020년 현재 원주의 행정면적은 872.56km²으로 606km²인 서울보다 272km²가 더 넓음.
- 도농복합지역으로 기존 농촌소속 지역이 존재함.
- 원주에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조성되어 원주시 도시지역은 원래 원주시 지역(원도심지역인 중앙동·학성동·일원동·원인동·명륜1·2동·개운동 등 7개 동지역과 외곽도시로 단계동·태장1·2동·봉산동·행구동·단구동·무실동·반곡관설동 등 9개 동지역임)과 문막읍 외에 혁신도시(반곡관설동)와 기업도시(지정면)가 더해져 4곳이 되었음.
- 원주는 강원도내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연평균 1.0~1.5% 지속적인 인구 성장을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임.



<그림 1> 2000년~2024년 원주시 인구수
(KOSIS, 행정구역별 성별인구수(총인구수))

나. 분석 및 평가

-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따라 반곡관설동과 지정면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새로운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주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연세대학교, 상지대학교 등 5개 대학이 위치하여 고등 인적자원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대학의 교원과 재학생은 2만4천여 명에 이르러 원주시 인구대비 약 7%의 비중을 차지함.
- '치악산-원주천-섬강'이라는 자연 공간 배경을 바탕으로, 평창올림픽 개최 및 원주역 이전 등으로 고속도로와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요충지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8. 원주시의 도시개발과 문화인프라 구축

가. 도시지역의 경우

- 원주역 부지 공원화
- 학성동·중앙동·봉산동·우산동의 도시재생 사업
- 원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원인동·명륜동의 고층아파트 재개발, 옛원주여고의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전환)
- 정지뜰 개발
- 군부지 개발사업(1군지사터)
- 군부지전환(캠프롱-국립과학관과 문화체육복합공원조성 옛1군사령부-주변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

나. 농촌지역의 경우

- 간현관광-레저형 기업도시조성계획
- 판부 서곡리 농촌파크계획
- 원주댐건설과 주변 신촌 복합관광단지계획
- 소초면 드림랜드 부지개발
- 부론·문막개발(부론 일반산업단지 개발, 문막앞뜰 개발사업)

다. 문제점

1) 공간불평등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거주인구의 커다란 차이로 인해 교통과 시설 인프라에서 큰 격차가 나타남.
-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집중적인 개발이 진행되나, 새로운 공간의 불평등문제가 제기됨.

2) 난개발문제

- 도농복합도시인 원주에서 일괄적인 개발은 건물과 자연에 대한 고려 없이 난개발에 따른 문제가 내포함.
- 인프라와 교통문제로 인해 특히 도심지에서 벗어난 기존 농촌지역 거주민들의 문화향유수준과 제고의 문제가 야기됨.

II.

박물관 현황

1. 일반현황

가. 박물관 건립 배경 및 당위성

- 원주는 '역사상 강원문화권의 중심지로서 향토 사료의 전승 가치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민속·예술 등 사료의 전문성을 갖춘 수집·보존·전시 공간이 전무하여',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였음.
- 이에 따라 '자료의 조사·연구 등 활성화로 향토문화 창달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원주 지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향토문화 교육의 산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1993년 11월 '향토박물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었음.
- 여러 차례의 논의와 부지의 변경을 거쳐 현재 위치인 원주시 봉산동으로 건축부지가 확정이 되었음. 이에 따라 1997년 12월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마침내 2000년 11월 14일 개관을 하였음.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음.

| 날짜 | 주요 내용 |
|---------------|-------------------------------------|
| 1993. 11. | 박물관 건립계획 수립 |
| 1997. 12. | 건축공사 착공 |
| 2000. 11. 14. | 원주시립박물관 개관 |
| 2003. 05. | 중앙전시홀 증축 |
| 2005. 04. | 전통문화 체험실 증축 |
| 2010. 02. 05. | 원주시역사박물관으로 명칭 변경, 강원감영지 관리·운영 업무 이관 |
| 2012. 12. 31. | 박물관 등록(강원도지사) |
| 2016. 07. 15. | 조염기념관, 임윤지당 선양관 관리·운영 업무 이관, 운영 |
| 2019. 05. 29. | 반곡역사관 개관 및 운영 |
| 2022. 12. 28. |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개관 및 운영 |
| 2024. 11. 12. |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복원기념식 개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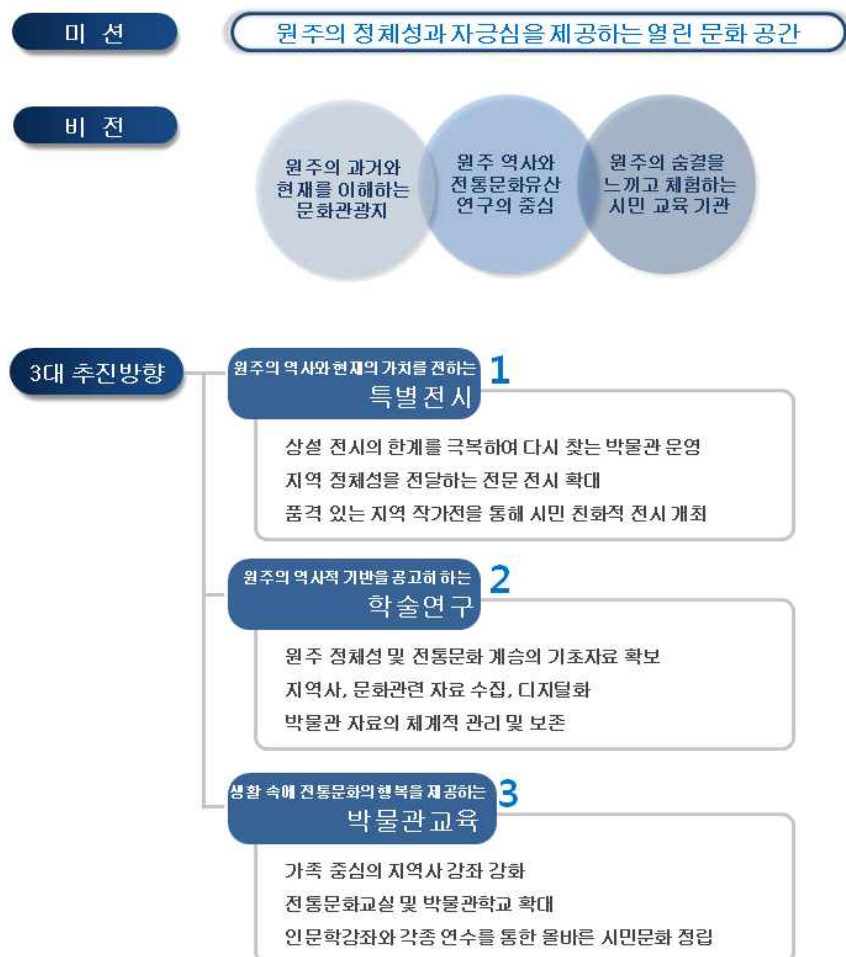
<표 3> 원주시역사박물관 연혁

나. 설립목적과 비전 및 미션

- 개관 당시 설립목적 : 역사상 중부 문화권의 중심지로서, 향토사료의 전승가치

가 높은 원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역사·민속·예술 등 사료의 전문성을 갖춘 수집·보존·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박물관 자료의 조사·연구 활성화로 지역문화 창달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며, 지방의 역사적인 유물과 자료를 집대성하여 후세에 보존·전승하기 위하는 것임.

- 2023년 원주시역사박물관의 중기 운영계획의 미션과 비전, 추진방향 정립하였음.
- 미션 : 원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제공하는 열린 문화 공간
- 3대 비전 : '원주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문화관광지', '원주 역사와 전통문화유산연구의 중심', '원주의 숨결을 느끼고 체험하는 시민 교육기관'
- 3대 추진방향 : '원주의 역사와 현재의 가치를 전하는 특별전시', '원주의 역사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학술연구', '생활 속에 전통문화의 행복을 제공하는 박물관 교육' 임. 이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음.



<그림 2> 2023 원주시역사박물관의 미션, 비전, 3대 추진방향

2.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및 인력 현황

1) 조직

- 원주시역사박물관은 학예연구팀, 문화재팀(문화재의 명칭 변경에 따른 국가유산팀으로의 명칭 변경 필요), 행정관리팀의 총 3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원주시역사박물관은 봉산동에 위치한 본관을 비롯하여 5개의 분관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 2010년에 강원감영, 2016년에는 조엄기념관과 임윤지당 선양관, 2019년 반곡역사관, 2022년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 업무가 차례로 이관되었음.

2) 인력 현황 및 사무분장

- 2025년 기준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장 1명을 비롯하여 행정관리팀 5명, 문화재팀 6명, 학예연구팀 9명이 있음.

| 총정원 | 관장 | 행정관리팀 | 문화재팀 | 학예연구팀 | 비고 |
|-----|----|-------|------|-------|----|
| 19 | 1 | 5 | 6 | 9 | |

<표 4> 2025 원주시역사박물관 인력 현황

- 이와 함께 2018년 원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재계의 업무도 이관되어, 박물관에서 원주시 전체의 국가유산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이처럼 박물관의 조직이 커지고, 인력도 증가하였으며, 업무도 늘어나게 되었음.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 소 속 | 직 위(급) | 담 당 업 무 |
|-------|------------------|---|
| | 역사박물관장 (행정5급) | ◦ 박물관업무 총괄 |
| 행정관리팀 | 행정관리팀장 (행정6급) | ◦ 행정관리업무 총괄 ◦ 박물관정책업무, 보안업무 ◦ 박물관 이전·신축 건립사업 ◦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행정7급 | ◦ 회계, 물품관리 |

| | | |
|------|-----------------|--|
| | 행정8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서무, 예산 ◦ 박물관협회 등 유관기관 협력업무 ◦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 시설대관 |
| | 시설관리8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박물관 시설관리(전기, CCTV, 통신 등) ◦ 역사박물관 청사 외부 시설관리 ◦ 반곡역사관, 임윤지당 시설관리 ◦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전기, 통신 등) ◦ 거둔사지 유적센터 시설관리(전기 등) |
| | 공업9급 (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박물관 시설관리(기계, 소방, 건축 등) ◦ 강원감영, 조엄기념관 시설관리 ◦ 법천사지 유적전시관(기계, 건축, 가스 등) ◦ 거둔사지 유적센터 시설관리(건축 등) |
| 문화재팀 | 문화재팀장 (시설6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업무 총괄 ◦ 국가유산 지정 및 해제 ◦ 국가유산 학술조사사업 ◦ 국가유산 환수사업(지광국사탑 등) |
| | 학예연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전시관 관리 및 등록 박물관 사업 ◦ 유적전시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기획 ◦ 법천사지 정비사업 ◦ 흥법사지 정비사업 ◦ 칠봉서원 정비사업 ◦ 국가유산 보수정비(국가지정) ◦ 세계유산 등재 ◦ 매장유산 지표·발굴조사 ◦ 천연기념물관리 사업 ◦ 국가유산 실측조사 사업 |
| | 시설7급 (건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보수정비(도지정, 등록문화재) ◦ 전통사찰·향교·서원 민간 이전 보수 정비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 국가유산 안전관리 ◦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매지농악전수관 시설 보수 |
| | 학예연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현상변경 관련법 검토 ◦ 국가유산 현상변경 허용기준관리 ◦ 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관리지원 ◦ 무형유산 전승자 기록화 사업 ◦ 무형유산 교육지원사업(교육경비) ◦ 원주 매지농악전수관 위탁운영 관리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 매지농악전수관 활성화 사업 ◦ 전수교육관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사업 ◦ 미래유산 지정 및 관리 ◦ 국가유산 매매업 관리 ◦ 원주향교 석전대제, 기로연 |
| |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신청 ◦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 국가유산 야행 ◦ 강원감영 상설 프로그램 운영 ◦ 강원감영 대표 프로그램 운영 ◦ 강원감영 문화학교 운영 ◦ 강원감영 보수정비(국가 및 도지정) ◦ 강원감영 사료관 전시 운영 ◦ 강원감영 사용허가 |
| | 행정7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적전시관 개관 및 운영관리 ◦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환수기념 행사 ◦ 유적전시관 공모사업 운영 ◦ 유적전시관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 국가유산 특별인력 관리(법천사지, 유적전시관 등) ◦ 법천사지, 거둔사지 청소, 경비 등 인력 관리 ◦ 유적전시관 소방시설 관리 |
| | 행정9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천사지·거둔사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유적전시관 및 거둔사지 유적센터 운영 관리 ◦ 유적전시관 유물 등록 ◦ 법천사지·거둔사지 해설사 운영 ◦ 국가유산 돌봄지킴이 업무 ◦ 자연유산 민속행사(성항림, 성황제) ◦ 국가유산 안내판 관리 |
| 학예연구팀 | 학예연구팀장 (학예연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예연구 업무 총괄 ◦ 역사박물관 중장기 계획 수립 ◦ 민공호 의병장 평전 발간사업 ◦ 짚풀공예 공모전 운영 ◦ 역사그림 공모전 운영 ◦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
| | 학예연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박물관 교육진흥계획 수립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총괄 ◦ 그림책 원주역사인물 프로그램 운영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시사·읍·면·동사 편찬 ◦ 원주사료·학술총서·원주문집 등 편찬 ◦ 원주 전통문화교육원 운영 ◦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 |
| 공업7급 (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사진 아카이빙 자료 구축 ◦ 원주 변천사 자료 구축 ◦ 수장고 유물 등재 및 관리(부) ◦ 박물관 발간도서 수록 사진촬영 ◦ 박물관 소장사진 자료이용허가 ◦ 박물관 사진, 영상자료 관리 ◦ 박물관 홍보영상 제작 |
| 학예연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박물관 전시진흥계획 수립 ◦ 상설전시실 운영·관리 ◦ 특별전기획 운영·관리 ◦ 스마트박물관 공모전시, 열린박물관 운영 ◦ 박물관 전시·홍보자료 제작 ◦ 전시실 및 수장고 환경개선사업 |
| 학예연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자료 보존·관리 진흥계획 수립 ◦ 수장고유물 등재 및 관리(정) ◦ 소장유물 보존처리 ◦ 전시실 및 수장고 보존환경 관리 ◦ 유물복제·열람·대여 허가 ◦ 유물구입·기증·기탁 및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 ◦ 장기대여 유물관리 |
| 공무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운영 ◦ 수장고 유물 등재 및 관리(부) ◦ 수장고 보존환경 관리 ◦ 박물관 도서 및 홍보물 관리 ◦ 박물관 전시 보조 |
| 공무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 응대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 상설체험실 운영·관리 ◦ 박물관 행사(세시풍속,어린이날) 운영 ◦ 박물관 어린이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박물관체험 운영 |
| 학예연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박물관 분관(조엄기념관, 임윤지당선양관, 반곡역사관) 운영업무 총괄 ◦ 역사박물관 분관 상설전시 유지·운영 ◦ 역사박물관 분관 전시콘텐츠 보완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곡역사관 관리 ◦ 반곡역사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 반곡역사관 행사프로그램 운영 |
| | 공무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윤지당선양관 관리 및 해설 ◦ 임윤지당선양관 활성화 진흥계획수립 ◦ 임윤지당 프로그램 운영 |

<표 5> 원주시역사박물관 사무분장(2023년 기준)

3. 시설

가. 원주시역사박물관

1) 면적

- 대지면적 7,420m²
- 건물면적 3,394m²
- 전통가옥 168m²
- 각 시설의 세부 면적

| 구 분 | 본 관 | | | | | | | 부속시설 | 계 |
|---------------------|---------|-------|------|-------|------|--------|----------|-------|----------|
| | 전시실 | 수장고 | 정리실 | 교육실 | 자료실 | 사무실 | 기 타 | 전통가옥 | |
| 실 | 5 | 3 | 3 | 3 | 2 | 3 | | | |
| 면적(m ²) | 1,114.4 | 297.1 | 58.9 | 181.9 | 34.5 | 128.04 | 1,410.42 | 168.3 | 3,393.56 |

<표 6> 원주시역사박물관 본관 건물 현황

2) 공간구성

- 주요 공간 : 전시실과 수장고, 연구·관리실 등
- 전시실 : 역사실과 현석실, 기획전시실, 민속생활실, 일사 김봉룡실 등 5개
- 수장고 : 일반수장고와 특별수장고 2개, 준비실·소독실 등 수장고에 부속된 4개의 실이 있음.
- 연구·관리실 : 사무실과 회의실, 도서실과 자료실 등 8개 실이 있음.
- 기타 시설 : 강당 181m²(70석 규모), 주차장(승용차 32대·버스 2대 주차 가능)
- 박물관이 있는 대지의 면적이 넓지 않으며, 건물도 작게 지어졌다. 건물의 외관 또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건물 내부의 각종 시설도 협소하여 다채로운 전시를 꾸미거나, 다양한 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도 무리가 있음.

나. 분관 시설 현황

1) 강원감영 부지 : 9,608m² (2,906평)

| 구 분 | 포정루 | 선화당 | 관리사 | 내아 | 행각 | 중삼문 | 내삼문 | 화단, 마당 | 계 |
|---------------------|-------|--------|-------|-------|-------|-------|-------|--------|--------|
| 실 | 1 | 1 | 1 | 1 | 1 | 1 | 1 | 1 | 8 |
| 면적(m ²) | 40.83 | 186.28 | 97.11 | 96.87 | 73.71 | 25.27 | 24.75 | 9,063 | 544.82 |

<표 7> 강원감영 건물 현황

2) 조엄기념관 부지 : 4,622m² (1,398평)

| 구 분 | 건축년도 | 규모 | 기념관 | 사당 | 주차장 | 체험장 |
|-----------|-----------|----|-------------------|------------------|-----|---------------------|
| 조엄기념관, 사당 | 2014.11.6 | 2동 | 233m ² | 48m ² | 20면 | 2,000m ² |

<표 8> 조엄기념관 건물 현황

3) 임윤지당 열 선양관 부지 : 184.8m² (56평)

| 구 분 | 건축년도 | 본 관 | | | | 계 |
|---------------------|----------|-------|-------|-------|-------|-------|
| | | 전시실 | 교육실 | 사무실 | 기 타 | |
| 실 | 2015.7.9 | 1 | 1 | 1 | | 3 |
| 면적(m ²) | | 101.4 | 21.00 | 23.58 | 38.82 | 184.8 |

<표 9> 임윤지당 열 선양관 건물 현황

4) 반곡역사관 부지 : 30,315.9m² (9,186평)

| 구 분 | 건축년도 | 규모 | 지1층 | 1층 | 2층 |
|-------|-----------|----|---------------------|----------------------|---------------------|
| 반곡역사관 | 2017.3.22 | 1동 | 67.45m ² | 353.23m ² | 507.2m ² |

<표 10> 반곡역사관 건물 현황

5)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부지 : 3,859m² (1,169평)

| 구 분 | 건축년도 | 규모 | 전시실 | 수장고 | 사무실, 강당 등 |
|-------|------------|------------------------|---------------------|----------------------|-----------|
| 유적전시관 | 2022.12.28 | 1동 2,231m ² | 472.3m ² | 165.72m ² | 1,592.98 |

<표 11>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건물 현황

4. 예산

가. 예산 구성

- 1) 2024년 총예산 : 87억 8,366만원
- 2) 역사박물관 운영예산 : 약 13억원
- 3) 사업예산

- 전시 예산 : 9천만원
- 공모전 운영 : 3,100만원
- 박물관 교육 : 4억 4천만원
- 인문학강좌 사업 : 800만원
-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운영 : 3억6천만원
- 조사연구비 : 9,600만원
- 시설관리비용 : 4억원

4) 분관 관리운영비 : 1억 6천만원

- 조엄기념관 : 6,300만원
- 임윤지당선양관 : 3,500만원
- 반곡역사관 : 6,300만원
- 강원감영 : 5억 3천만원
- 강원감영 활성화사업 : 2억 2천만원(강원감영 전통문화체험-2천4백만원, 민간행사- 8천만원 포함)

5) 문화유산 관리 예산 : 65억원

- 법천사지 보수정비 : 21억여원
- 주산리 유적 정비 : 8천만원
- 남한강 유적지 전시관 운영비 : 5억 7천만원
-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 1억 7천만원

6) 예산 구성 분석

- 원주시역사박물관 예산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유산 관리분야임. 박물관 본래의 기능을 학예연구팀이 추진하는데 반해 관련예산은 현상유지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시설투자과 학예연구사업의 확충을 위해 관련 예산의 확대와 적절한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소장품

2024년 9월 현재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소장품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건 | 점 |
|-------|---------|---------|
| 금속 | 591건 | 1,364점 |
| 토제 | 663건 | 874점 |
| 도자기 | 818건 | 1,065점 |
| 석 | 157건 | 241점 |
| 유리/보석 | 14건 | 31점 |
| 초제 | 39건 | 64점 |
| 나무 | 757건 | 1,451점 |
| 골각패갑 | 289건 | 695점 |
| 지 | 14,272건 | 27,240점 |
| 피모 | 38건 | 69점 |
| 사직 | 545건 | 743점 |
| 종자 | . | . |
| 광물 | 3건 | 3점 |
| 화석 | . | . |
| 고무 | . | . |
| 합성재질 | 1,821건 | 3,815점 |
| 칠기 | 9건 | 21점 |
| 기타 | . | . |
| 합계 | 20,016건 | 37,676점 |

<표 12> 원주시역사박물관 소장품 현황

6. 전시

가. 상설전시

1) 역사실

- 원주의 역사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원주역사개관>-<선사시대 원주>-<고대의 원주>-<고려시대 원주>-<원주의 문화유적분포>-<조선시대 원주>-<구한말 이후 원주>로 구성함.
- 구석기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원주의 주요 유적과 유물을 전시하여 원주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 원주의 역사만으로도 통사(通史)를 구성할 수 있는 역사도시임을 잘 드러내고 있음.
- 특히 법천리 삼국시대 백제고분군 출토 유물들, 고려시대의 찬란했던 불교문화

를 보여주는 흥법사지·거둔사지·법천사지 출토유물들, 조선시대 강원감영, 일제강점기 의병활동 등 시기별 원주를 대표하는 유적과 유물들을 전시하여 서울, 경주, 공주, 부여와 함께 우리나라 5대 역사도시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음.

| | |
|---|---|
|  | <p><선사시대 원주>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 원주지역의 여러 유적과 유물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음을 보여주는 전시</p> |
|  | <p><고대의 원주>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원주지역의 여러 유적과 유물을 통해 고대시대부터 원주가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보여주는 전시</p> |
|  | <p><고려시대 원주> 고려시대 거찰 흥법사지·거둔사지·법천사지 출토유물 및 탑비 탁본 등을 통해 원주가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중심지였음을 보여주는 전시</p> |





| | |
|---|---|
|  | <p><조선시대 원주> 조선시대 500년간 강원수부도시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던 원주의 위상을 보여주는 전시</p> |
|---|---|

<표 13> 원주시역사박물관 상설전시 역사실의 주요 전시내용

2) 민속생활실

- 2000년 개관 당시 농경사회의 세시풍속과 의식주 및 생업과 관련된 민속품을 전시하여 우리 선조들의 다양한 일상을 전시하였음.
- 2018년 5월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기존 소형 진열장을 대형 진열장으로 교체하고, 한지를 주제로한 전시물들을 새롭게 추가 하였음.

| | |
|---|--|
|  | <p><원주의 풍수지리> 치악산과 섬강으로 대표되는 원주의 풍수지리와 성황림과 성황제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전시</p> |
|  | <p><우리 생활 속의 한지> 원주의 대표적인 특산품 중 하나인 한지를 주제로 하여, 한지제작기술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한지의 쓰임새를 보여주는 전시</p> |

| | |
|---|---|
|  | <p><원주인의 일생-통과의례> 유교에 기반한 관혼상제의 통과의례와 조선시대 동인·남인 계열의 의례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주의 의례를 보여주는 전시</p> |
|  | <p><원주의 농악> 원주를 대표하는 농악인 매지농악과 오리현농악을 보여주는 전시</p> |
|  | <p><세시풍속·민속놀이> 농경문화를 잘 보여주는 24절기에 따른 민간의 풍속과 놀이 등을 보여주는 전시</p> |
|  | <p><원주인의 민속신앙> 원주의 전통사회 일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민속신앙을 보여주는 전시</p> |

<표 14> 원주시역사박물관 상설전시 민속생활실의 주요 전시내용

3) 일사 김봉룡실

- 2000년 개관 당시 고미술실이었던 곳임. 2012년 일사 김봉룡 선생의 기증유물로 전시하게 되어 '일사 김봉룡실'로 명칭을 바꾸었음.
- 일사 김봉룡 선생은 원주의 대표인물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 근현대 나전칠기공예 장인임. 1968년 칠과 원목 생산지인 원주에 정착하였고, 전통적인 장인을 넘어 고유한 작품세계를 창조한 근대예술작가로 평가받는 거장임.
- 우리나라 전통공예인 나전칠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사 선생의 작품과 작품활동에 사용하던 각종 도구 등을 전시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



<표 15> 원주시역사박물관 상설전시 일사 김봉룡실

나. 기획전시

1) 기획전시실

- 원주시역사박물관의 첫 기획전 개최 : '무위당 그 삶과 미래' 특별전, 2001년 5월 20일 개최. 이후 원주시역사박물관의 주요 전시공간으로, 기획전·특별전·초대전 등이 수차례 개최되었음. 현재는 현석실로 바뀌어 활용중임.

2) 기획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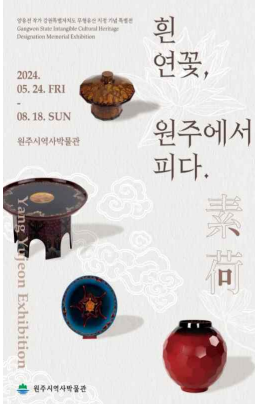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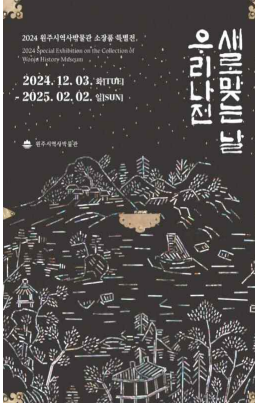
- 기획전시공간은 박물관 로비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 개관 당시 전시동과 관리동을 구분하는 중앙 통로였던 공간이었음.
- 2002년 부족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고자 이 통로 198㎡를 리모델링하여 2개의 대형 진열장을 설치하여 기획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3) 전시 개최 현황

- 원주시역사박물관에서 상설전시를 제외한 특별전시는 크게 3가지로, 기획전시·집품공예공모전·전통문화교실 수강생 작품전임.
- 연간 전시 개최 횟수는 최소 3·4회에서 최대 7·8회까지로 유동적임.
- 2024년 전시 개최 현황



- 전시명 : 2024 갑진년 청룡의 해 특별전 <푸른 꿈의 비상, 龍>
- 전시기간 : 2024. 2. 27. ~ 5. 12.
- 전시내용 : 용의 다양한 형상과 의미가 담긴 생활유물 및 공예작품 등 소장유물 40여 점 전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명 : 양유전 작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채화칠장 지정 기념 특별전 <素荷 : 흰 연꽃, 원주에서 피다> - 전시기간 : 2024. 5. 24. ~ 8. 18. - 전시내용 : 칠화칠기의 역사를 담은 양유전 작가 소장 작품 및 박물관자료 약 40여 점 전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명 : 2024 원주시역사박물관 소장품 특별전 <우리 나전, 새로 맞는 날> - 전시기간 : 2024. 12. 3. ~ 2025. 2. 2. - 전시내용 : 박물관 소장 나전 작품 약 30여 점 전시 |

<표 16> 원주시역사박물관 상설전시 일사 김봉룡실

7. 출판

가. 출판 현황

1) 원주사료총서 : 40책 발간

- 원주에 관한 역사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
- 한문체로 기록된 원주에 관한 기초적 역사기록 역주(譯註)

2) 원주학술총서 : 26책 발간

- 원주의 역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
- 각 부문별(역사, 인물 등) 지속적인 학술연구

3) 원주역사시리즈 : 17책 발간

- 원주의 역사·문화와 인물에 대해 시민들에게 쉽게 홍보
- 주제별 또는 인물별로 소책자 발간

4) 원주사진사료집 : 3책 발간

- 원주에 관한 사진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5) 원주역사만화 : 1책 발간

-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만화형태로 구성하여 발간
- 초등학생의 원주향토사 교육의 밑거름으로 활용

6) 원주역사그림 : 10책 발간

-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그림형태로 구성하여 발간
- 초등학생의 원주향토사 교육의 밑거름으로 활용

7) 원주문헌총서 : 1책 발간

- 원주의 역사 사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

8) 원주지명총람 : 3책 발간

- 원주의 지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
- 사라져가는 원주의 지명의 지속적인 학술연구

9) 전시도록·용역 : 3책 발간

- 원주시역사박물관의 기획전시를 통한 도록 발간
- 각 부문별(전시 장르별) 지속적인 학예연구 축적

10) 원주인문학총서 : 5책 발간

- 원주지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인문학 총서 발간
- 원주 한시의 전통을 계승하는 맥락으로 활용

11) 원주금석문집 : 2책 발간

- 원주지역에 유존하는 금석문(비석 등) 역주(譯註)
- 훼손·마멸되어가는 금석문을 현재 상태로 영구히 전승

12) 원주구술사 : 5책 발간

- 원주의 근현대사 관련 구술사 자료 수집
- 향후 『원주시사』 편찬의 기초자료로 활용

13) 원주역사홍보 : 3책 발간

- 원주의 역사·문화·인물 등의 홍보용 소책자
- 원주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기초자료

14) 원주시사자료집 : 122책 발간

- 원주와 관련된 현재의 자료를 수집
- 향후 『원주시사』 편찬의 기초자료로 활용

15) 중천김충열전집 : 14책 발간

- 김충열 선생의 학문적 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리

16) 원주문헌자료 : 11책 발간

- 원주와 관련된 사료 및 자료를 영인, 발간
- 원주 역사 규명의 기초 자료로 활용

나. 박물관 도서출판 사례 및 시사점

1)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번역서 발간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해외 어린이박물관의 지침서를 번역하여 『어린이의 박물관 경험 이해하기』를 출간
- 유아 교육 이론부터 공간, 전시, 박물관 교육, 직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박물관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 포함

2)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의 그림책 출판 프로젝트

- 현대어린이책미술관은 아직 출판되지 않은 그림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언-프린티드 아이디어' 프로젝트 진행
-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관람객 투표를 통해 출판 기회 제공
- 새로운 어린이 그림책의 발굴과 출판을 지원

3)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의 다문화 꾸러미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문화 꾸러미'를 제작하여 배포
- 꾸러미에는 다양한 문화권의 이야기책과 활동지가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 가능

4)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아트 랩 프로그램

- 뉴욕현대미술관은 '아트 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현대 미술의 아이디어와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무료 운영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험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

5) 시사점

- 발간 총서를 중심으로 정기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화 필요
- 발간 총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 총서 시리즈 기획 필요
- 구체적인 내용에 기반한 세미나 운영 가능
- 예산 최소화 운영 가능
- 박물관 홍보 마케팅 강화 기회
- 참여자의 소속감 강화 및 학술 내용의 대중화 계기로 활용 가능

8. 교육 및 문화행사

가. 수요인문학 강좌

1) 목적

- 원주의 역사에 대한 주제별 강의를 통해 고장에 대한 역사 이해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나아가 교육·문화시설로서의 역사박물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한편 관람객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함.

2) 내용

- 원주시민 대상, 원주의 역사와 유산을 주제로 총 10회 강좌 운영 (9~10월)
- 사업비 : 470만원
- 강좌
 - : 한국의 민속유산과 신앙
 - : 한국의 석조유산과 원주 1, 2
 - : 나옹 혜근과 원주의 문화유산
 - : 강원감영과 원주
 - : 원주의 농악
 - : 원주의 민요
 - : 원주의 문화유산과 콘텐츠

: 한국의 불교조각과 원주 1, 2

나. 토요일인문학 강좌

1) 목적

- 원주의 시민들을 위한 역사, 사회 등 인문학에 대한 주제별 강의를 통해 인문학에 대한 이해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 2022년 토요일 인문학 강좌는 <위드 코로나 시대, 박물관에서 슬기로운 생활>을 주제로 원주시민들의 지적 욕구 충족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내용

- 위드 코로나 시대 , 박물관에서 슬기로운 생활
- 내용 : 총 9회 대면 강좌 운영
온라인(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박물관 유튜브 업로드)
- 사업비 : 736만원
- 강좌
 - : 언택트 시대의 여행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것들
 - : 친일인가 개혁인가 - 김옥균과 갑신정변 인식 100년
 - : 장자 철학 - 자유로운 마음, 타자와의 어울림
 - : 종교영화로 보는 고통과 구원 - <밀양>,<곡성>의 두가지 시선
 - : 시민과학과 IT 기술
 - : 역사에서 배우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 정조와 세종의 애민정신
 - : 어른이와 어린이의 취미 - 놀라운 기회의 도구의 세계
 - : 근대한국의 인플루엔자 대응
 - : 한국인의 일생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다. 온라인 인문학 강좌

1) 박물관에서 만나는 원주 역사 이야기(2021)

(가) 목적

- 원주의 역사에 대한 주제별 강의를 통해 우리 고장의 역사를 이해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온라인 강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직접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주시민들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나) 내용

- 원주의 역사를 주제로 총 6회 온라인 강좌 운영 (7~9월)
- 온라인(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박물관 유튜브 업로드)
- 사업비 : 882만원
- 강좌
 - : 강원도의 인문적 정체성
 - : 원주 역사 바로잡기
 - : 김금원과 『호동서락기』
 - : 박죽서와 『죽서시집』
 - : 원주의 지명 유래 1, 2

2) 박물관에서 만나는 원주 역사와 문화 이야기 (2023)

(가) 목적

- 원주의 역사에 대한 주제별 강의를 통해 고장에 대한 역사 이해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 교육·문화시설로서의 박물관 이미지 제고 및 관람객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나) 내용

- 박물관에서 만나는 원주 역사와 문화 이야기
- 내용 :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총 10회 강좌 운영 (4~12월)
- 사업비 : 470만원
- 강좌
 - : 원주의 선사문화 유적
 - : 삼국시대 원주 - 삼국의 각축장
 - : 복원경과 남한강 불교문화
 - : 조선시대 강원감영과 그 역할
 - : 원주독립운동사
 - : 6.25 전쟁과 원주 전투
 - : 원주의 방언
 - : 교통의 중심 원주
 - : 문화도시 원주
 - : 원주 지명 유래

라. 교육·홍보 프로그램 사례

1) 경기도박물관 가족 참여 프로그램

- 경기도박물관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 '문화영화 상영'은 어린이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정기적으로 상영하여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 '전통 민속놀이 공연'은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 열리며,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

2)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문화의 날 행사'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 이주민 간의 통합 도모
-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

3)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의 참여적 교육 프로그램

-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중
- 문제기반학습(PBL)을 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설계됨
-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 의식 함양

4) 덕수궁근대미술관과 신묵초등학교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

- 덕수궁근대미술관은 서울 신묵초등학교와 협력하여 박물관과 학교 교육 연계
-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사전 학습, 전시 관람, 체험 활동, 사후 학습 등으로 구성
- 학생들은 미술관 교육을 통해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고, 교사들은 박물관 자원을 활용한 교육 방법 개발 가능

5) 국립중앙박물관의 장애 아동 대상 프로그램

- 국립중앙박물관은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병풍 속 동화

세상' 운영

- 시각적 요소를 강조하여 청각장애 아동들이 병풍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직접 병풍을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 포함
- 장애 아동들도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지역 박물관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적 역할 수행

마. 시사점

1)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상시적 연결성 및 지속성 확보 필요성

-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시도되었으나 개별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없음.
- 계절별 프로그램 배치 또는 전시 기획에 맞춘 교육 등 박물관이 원주시민을 위한 상시적 문화향유 공간으로 기능하는 내용성 확보 필요함.

2) 박물관 교육 홍보 마케팅 전략 필요

- 모든 교육 프로그램 강좌 홍보가 보도자료, 원주시 행정매체에 국한되어 있음.
- 원주시 공용게시물(현수막) 게시는 일부만 하고 있음.

III. 타 기관 사례

1. 선정 배경

- 보다 객관적인 비교·분석을 위하여 다른 도시 소재 박물관의 사례를 검토함.
- 도시의 역사성을 기준으로 삼아, 원주시와 비슷한 곳을 선정함. 즉 과거에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있었던 도시, 그 역사성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거나 함양하려는 도시들을 선정하였음.
- 각 도시의 인구수를 고려하여 도시규모에 적절한 박물관의 규모를 탐색하고자 하였음.
- 최종 선정된 도시는 총 5개 도시로, 다음과 같음.

| 도시명 | 도시성격 | 인구수(25.2. 기준) | 비고 |
|-----|-----------|---------------|----|
| 공주시 | 백제 고도(古都) | 10만 690명 | |
| 부여군 | 백제 고도(古都) | 5만 9,294명 | |
| 익산시 | 백제 복도(複都) | 26만 7,321명 | |
| 청주시 | 충청수부도시 | 85만 5,097명 | |
| 파주시 | | 51만 4,717명 | |

<표 17> 비교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성격과 인구수

2. 시사점

가. 도시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 공주·부여·익산은 모두 고대국가 백제의 수도였던 곳임. 그 역사·문화자산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음.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이 세 도시 모두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었고, 모두 국립박물관이 있는 도시들임.
- 원주 또한 신라시대 북원경, 고려왕조의 배태지 및 불교문화의 정수를 품은 곳임. 또한 조선시대 600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도시로서 위 도시들과 같이 중심체적 속성을 굳건히 유지해온 도시임. 따라서 위 도시들과 같은 거점 박물관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파주는 위 도시들과는 다르게 현대에 이르러 신도시를 비롯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로 급속히 성장한 도시임. 이러한 특성은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통해 인구소멸시대에도 성장하고 있는 원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청주의 경우는 원주와 같이 통일신라시대 소경(小京)이 있었고, 조선시대 충청의 수부도시였으나, 인근 도시로 그 기능이 이전된 것과 같이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 또한 현대에 이르러 시·군 분리, 통합 청주시 출범 등 원주와 유사한 도시 발전 배경을 가지고 있음.

나. 박물관 측면에서의 시사점

- 도 단위 지역의 역사·문화·연구의 거점기관, 대표 박물관 표방
-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유/무형의 고유한 핵심 콘텐츠 소유
- 상기 핵심 콘텐츠를 박물관 특성화 코어로 활용함
- 시민 및 관람객 친화 박물관, 열린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 표방
- 상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AR·VR·미디어아트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전시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 원주 남한강 유역 3대 폐사지 세계유산 등재
- 지역 내 주요 유적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전시관, 박물관 건립하여 성장->법천사지 유적전시관 및 강원감영

3. 각 도시 및 박물관 현황

가. 공주시

1) 공주시의 자연·지리 및 역사·문화 현황

- 공주시는 충청남도 동부에 있음. 동쪽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동남쪽으로 대전광역시와 계룡시, 서쪽으로 청양군, 남쪽으로 논산시와 부여군, 북쪽으로는 천안시와 아산시, 예산군이 접해 있음.
- 공주는 삼국시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인 웅진성이 있었던 곳임. 문주왕 때 수도가 되어 5대 63년간 백제의 중심지였으며, 백제 멸망 이후에는 당나라가 이곳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기도 하였음.
-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충주목과 함께 충청감영이 있어 충청도의 수부도시로서 기능하였으나, 1932년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되며 충청수부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음. 그러나 백제 송산리고분군, 공산성 등 과거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남아있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음.

2) 국립공주박물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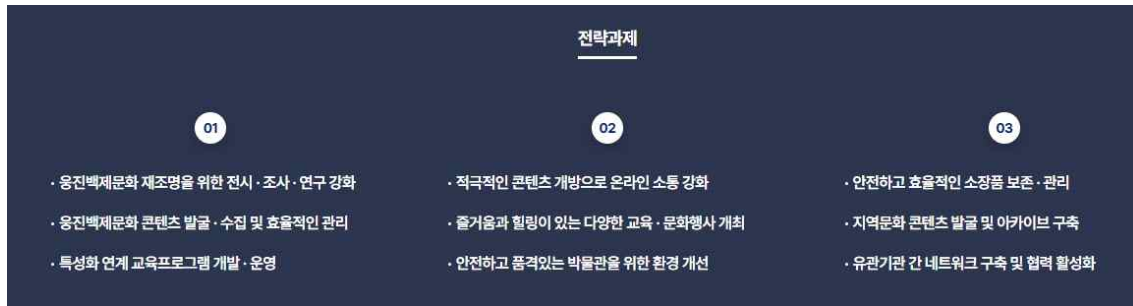
- 1940년 '공주사적현창회'라는 단체가 충청감영 선화당을 전시관으로 활용하여, 공주박물관이란 이름으로 박물관을 개관하였음. 1946년 이 전시관을 인수하여 '국립박물관 공주분관'으로 하였고, 1972년에 국립중앙박물관 공주분관으로 개칭되었음.
- 1973년 국립중앙박물관 공주분관 신축개관하여 무령왕릉 출토유물을 이곳에 전

시하였음. 1975년 '국립공주박물관'으로 개칭 및 직제를 개정. 1999년 국립공주박물관 신축에 착공하였으며, 2004년에는 현재의 공주시 웅진동 건물로 확장 이전하여 재개관하였음. 중동에 있던 옛 부지는 보수 후 충청남도역사박물관으로 개장함.

- 국립공주박물관 주변에는 송산리고분군과 충청감영 선화당·포정사 등 문화 유적이 밀집해 있음.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주변의 유적들과 어우러져 공주의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음.
- 2020년 충청권역 수장고를 신축하여 국립 부여·공주·청주박물관 소장품 중 도·토기, 기와, 석기 등 국가귀속문화유산을 보관·관리하고 있음.
- 국립공주박물관의 설립목적은 '웅진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전시하는 것'임.
- 국립공주박물관의 비전 및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음.



<그림 3> 국립공주박물관 3대 전략목표



<그림 4> 국립공주박물관 전략과제

- 대지면적 70,119㎡, 건축면적 8,149㎡, 연면적 18,288㎡. 주요시설은 웅진백제실, 충청남도 역사문화실, 기획전시실, 웅진백제 어린이체험실 등 전시시설이 있음. 사회교육시설(야외공연장, 강당, 세미나실, 영상실 등)과 기타 편의시설 등이 있음.

나. 부여군

1) 부여군의 자연·지리 및 역사·문화 현황

- 부여군은 충청남도 서남부에 있음. 동쪽으로 논산시, 서쪽으로 보령시와 서천군, 북쪽으로 공주시와 청양군, 남쪽으로 익산시와 군산시를 접하고 있음.
- 부여의 옛 이름은 사비로, 538년 백제 성왕이 웅진성(현 공주시)에서 사비성(현 부여군)으로 천도한 이후 멸망시까지 6대 122년간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곳임.
- 백제 금동대향로, 정림사지, 부소산성 등 백제시대의 문화유적들이 많이 남아있어, 군의 정체성은 물론 관광자원에서도 백제의 문화유산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2) 국립부여박물관 현황

- 국립부여박물관은 1929년 재단법인 부여고적보존회 창립으로부터 시작되었음. 1939년 조선총독부박물관 부여분관이 설치되었고, 1945년 국립박물관 부여분관으로 개칭되었음. 1975년 국립부여박물관으로 승격되었고, 1993년 현 박물관으로 이전 개관하였음. 2005년 보존과학관을 증축 개관하였고, 2011년 복합문화센터 '사비마루'를 증축 개관하였고, 2014년 상설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하였음.
- 국립부여박물관은 '**사비백제 문화 연구 및 전시 등 마한·백제권 국가대표 박물관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국립부여박물관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음.



<그림 5> 국립부여박물관 설립목적, 비전·미션 및 전략목표

- 대지면적은 총 61,429㎡, 건축면적 9,579㎡, 연면적 14,483㎡. 주요시설로는 전시동(1~3전시실, 기증유물전시실, 수장고, 뮤지엄샵 등), 사무동, 기획전시관, 사비마루(공연장, 어린이박물관), 보존과학관 등이 있음.

다. 익산시

1) 익산시의 자연·지리 및 역사·문화 현황

-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서북부에 위치함. 동쪽으로 완주군, 서쪽으로 군산시, 남쪽으로 김제시와 전주시, 북쪽으로 충남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이 인접해 있으며, 호남의 관문도시로 여겨짐.
- 익산은 삼한시대 마한 54개국 중 하나이자, 맹주국이었던 건마국(乾馬國)이 있었던 지역임. 이후 백제에 편입되어 금마저(金馬渚)라 하였음.
- 1989년부터 약 30년간 조사를 진행한 왕궁리 유적이 백제 궁터 유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익산은 무왕 통치기에 이르러서 수도 사비와 함께 복도(複都)였음이 밝혀졌음. 특히 익산은 이 왕궁리 유적과 함께 무왕이 건립한 미륵사지,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쌍릉 등 백제 무왕과 관련된 문화유산이 많은 지역임.

2) 국립익산박물관 현황

- 국립익산박물관은 19980년~1996년까지 진행된 **익산 미륵사지 발굴조사 출토유물들에 대한 관리·보존·연구·전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립되었음. 이 발굴조사가 완료되며 출토된 19,000여 점의 유물들을 효율적으로 보존 및 전시하기 위하여 1997년 도립으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개관한 것이 그 시작임.
- 2009년 미륵사지 석탑 해체·보수 작업과정에서 다량의 사리장엄구가 출토, 2015년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 이러한 문화유산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해야 할 도립 전시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음.
- 2015년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으로 전환, 2019년 국립익산박물관으로 승격, 2020년 본관 전시동 증축 및 재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국립익산박물관의 비전과 핵심가치, 전략과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음.



<그림 6> 국립익산박물관의 비전과 핵심가치



<그림 7> 국립익산박물관의 전략 및 성과목표

- 국립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 유적 한쪽에 조성되어 유적의 경관을 돋보이게 하고자 낮게 건축되었다. 박물관 주요건물은 본관(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 등)과 보존처리동, 어린이박물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청주시

1) 청주시의 자연·지리 및 역사·문화 현황

- 청주시는 충청북도 서부에 있음. 동쪽으로 괴산군, 서쪽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천안시, 남쪽으로 대전광역시와 보은군, 북쪽으로 진천군과 증평군이 인접해 있음. 충주와 함께 충청도의 명칭을 이루는 대표적인 도시임.
- 약 1만 7천 년 전 선사시대의 탄화범씨가 1996년 매장문화재 조사과정에서 발견되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범씨 출토지로 널리 알려져 있음. 역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삼국시대 백제의 상당현(上黨縣)이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9주 5소경 중 하나인 서원소경(西原小京)이었음.

- 고려 태조대에 이르러 청주목이 되었음.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고려시대 청주목의 흥덕사에서 인쇄되어 '직지의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져있음. 조선시대에는 1395년 충청감영이 설치되었고, 1603년 공주로 감영이 이전되기 전까지 충청의 수부도시였음.

2) 국립청주박물관 현황

- 국립청주박물관은 **충북지역의 문화유산을 조사·연구·전시하고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원문화의 특색을 조명하고자** 1987년 10월 30일 개관하였음. 박물관 건물은 우리나라 대표 건축가 김수근(1931~1986) 선생이 설계한 것으로, 한국 현대건축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산중의 은거를 꿈꾸었던 선조들의 심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내었고, 견고한 성곽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중한 국가유산의 보관처로서 박물관의 이미지를 건축으로 구현해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음.
- 2022년 상설전시관을 새롭게 개편하여 고고실과 미술실에는 충청북도의 선사, 고대,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발굴품 및 금속 국가유산과 불비상(佛碑像) 등 1,4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음.
- **故 이건희 회장 수집 금속 국가유산도 함께 전시하고 있음. 특히 국립청주박물관의 금속문화 브랜드 강화**를 위해 문을 연 금관실에는 금속공예의 정수, 서봉총 금관과 금허리띠를 특별공개하고 있음.
- 박물관 야외에는 진천 석장리 유적 백제 제철로(製鐵爐) 복원시설 및 청주 용담동 유적 통일신라 무덤을 복원 전시하고 있음. 또한 **故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836점의 석조 국가유산** 중 210여 점을 선별하여 야외 석조정원을 새롭게 조성하였음.
- 대지면적 67,302㎡, 건축면적 10,704㎡에 전시동, 사무동, 문화사랑채, 청련관, 청명관, 어린이박물관 등 주요 건물과 기타 시설이 있음.
- 국립청주박물관은 국보급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우수한 유물 관리 환경과 전시환경을 통해 국가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지역 거점 박물관으로서 확고한 문화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박물관임.**

마. 파주시

1) 파주시의 자연·지리 및 역사·문화 현황

- 파주시는 경기도 북서부에 있음. 서쪽과 북쪽으로 북한 개성시와 인접해 있고, 남쪽과 서쪽으로는 김포시, 동쪽으로는 양주시와 연천군, 남쪽으로 고양시와 인

접해 있음.

-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도시·최전방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많았음. 헤이리 예술마을, 프로방스 마을, 파주출판도시 등이 생기면서 문화·예술도시로 변모함. 더불어 운정신도시 개발로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역사적으로 파주시는 삼국시대 고구려 장수왕 시기 술이홀현(述爾忽縣)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있음. 통일신라 경덕왕 대에 봉성현(峰城縣)으로 이름이 바뀌었음. 고려 명종 대에 서원현(瑞原縣)으로 개칭되었고, 조선 세조 대에 파주목(坡州牧)이 되어 개칭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현황

- 파주시 소재 박물관은 모두 헤이리 마을에 소재하고 있음. 대부분이 사립이며, 헤이리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및 전시공간으로 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유일하게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가 있는데, 이곳 역시 박물관이라기 보다는 '전시기능이 가미된 개방형 수장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는 개방된 공간(Open Building), 개방된 소장품(Open Collection), 개방된 기관(Open Institution)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2016년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설계 공모하여 선정된 당선작으로 설계되었음.
- 2021년 7월 경기도 북부지역 첫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음. 이곳은 유물과 아카이브 자료를 보관·관리하며, 전시기법을 접목한 개방형 수장고이자 관람친화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총 15개 수장고에 약 100만점 이상의 소장품과 아카이브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 부지면적 65,416㎡, 대지면적 60,212.7㎡, 연면적 10,202㎡, 건축면적 4,553.38㎡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임.

제3장 환경 분석

I. 박물관의 역할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

1. 박물관의 역할 변화

가. 전통적인 박물관의 정의

1) 국제박물관협회(ICOM)의 정의

- 박물관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대중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향유를 위하여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유형·무형의 증거를 수집·보존·연구·교류·전시한다(ICOM Code of Ethics for Museums, 2006).

2) 미국박물관협회(AAM)의 정의

- 박물관은 일시적인 전시회의 수행을 우선적 존재 목표로 하지 않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소득세를 면제받으며, 대중에게 개방되고 대중의 이익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영구적 비영리 기관이다(Code of Ethics for Museums, 2000).

3) 우리나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정의

-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010. 3. 10 개정).

나. 박물관의 변화된 역할

1) 박물관 개념의 변화

- 박물관은 전통적으로 역사·문화·자연 등 인류와 자연환경 등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보관하고 전승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단순한 수집·보존·전승을 넘어 시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한 기관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 구분 | 1세대 (20C 初) | 2세대 (20C中~20C後) | 3세대(21C 이후) |
|--------|-----------------------|----------------------------------|---|
| 목적 | • 보존지향 • 관람자원의 기초화 | • 공개지향 • 컬렉션 중심, 기획전시 • 견학 | • 참여 공간 • 사회와의 연계강화 • 활용중심 |
| 전문 직원 | • 일반 공무원 중심 | • 학예직 중심 | • 전문가 중심 |
| 건물 | • 창고-건물의 위압감 중시 | • 전시실 중심, 외관을 중시 | • 사업 중심, 기능 중심 공간배치 |
| 조사연구 | | • 학예직 중심의 조사연구 | • 사회적 요구에 따른 조사연구 • 각종 공통조사 |
| 연구용 시설 | | • 사무실 | • 연구실·작업실 별도 |
| 수집·보관 | • 개관 시와 큰 차이 없음 | • 무엇이든지 수집 • 일부 외부위탁 실시 | •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수집·DB化 • 여유있는 수장시설 • 전문가중심 운영 |
| 공개·교육 | • 전시만 함 | • 전시와 테마 중심의 사업시작 | • 체험형 전시, 일반참가자 적극 활용 |
| 운영 | • 명예직 관장 | • 행정직 관장 | • 전문직 관장 |
| 홍보 | | • 학예직에 의한 일부 실시 | • 전문 담당자 또는 외부 사업화 |
| 민관 협의회 | | • 형식적 운영 | • 적극적 운영 |
| 편의시설 | • 화장실 정도 | • 소파와 화장실 정도 | • 각종 편의시설 |

<그림 8> 박물관 개념의 변화(국립고궁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16쪽, 2016)

○ 국제박물관협회(ICOM)의 새로운 정의

박물관은 유무형 유산을 연구, 수집, 보존, 전시 및 전달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영구적인 비영리 기관이다. 대중에게 개방되어 접근하기 쉽고 포용적이며,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촉진한다. 박물관은 전문적이고 윤리적이며 지역 사회의 참여로 운영되고 교육, 향유 및 지식 확장을 위해 다양한 관객 경험을 제공한다 (제26차 국제박물관협회(ICOM) 세계박물관대회(프라하/22.8.24.)).

2) 박물관 역할변화의 배경

- 박물관 관람객이 증가하였음.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제의 완전 정착, 여가시간 증대 등의 요인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수도권과 지방사이의 문화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의 가속화에 따른 이러한 격차 역시 커지고 있음.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인구구조가 변화함. 즉 고령화에 따라 이들이 주요 문화소비층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문화 소비의 형태 및 트렌드가 변화하게 되었음.
-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위와 같은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 등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촉진을 불러오고 있음. 그러나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의 성숙도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기존의 배타적 태도에서 벗어나 합리성·다양성에 기반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박물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박물관·미술관 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정책 방향으로 '고유기능 강화 및 질적 성장 유도(38.2%)'와 함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과 담론 형성 강화(16.6%)'를 응답하였음. 이러한 조사결과는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도 앞서 살펴본 여러 사회적 요구들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있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음을 나타냄.

2. 박물관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 검토

-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많은 사회적 요구들이 증가함에 따라 박물관은 옛것을 단순히 보관·전시만 하는 정형화된 기관이 아닌, 대중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
- 박물관은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적 유무형의 증거들을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 제고 및 자긍심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나아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의 거점,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특히 교육기관·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과거 박물관에서의 교육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유물에 대한 정보 전달 등에 머물러 있었다면, 현재 박물관 교육은 박물관과 관람객, 관람객과 관람객 사이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확대시켜 지역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역할하고 있음.
- 많은 유적과 유물에 대한 '지식의 보고'로서 기능을 넘어, 이를 응용 및 활용하는 '문화콘텐츠의 보고'로서 변화·발전하고 있음. 이로써 박물관의 사회적 가치와 효용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음.

3. 박물관 서비스의 질적 전환

- 전통적인 개념의 박물관은 인류행위의 증거들인 유물들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음. 이에 따라 박물관의 여러 활동들은 큐레이터 등 박물관 종사자들,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
- 박물관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 이에 따른 박물관의 역할 변화 등에 의해 관람객 또는 수요자 중심의 기관으로 변모하게 되었음. 즉 체험학습 등과 같은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다 잘 기획·운영

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음. 단순한 지식전달을 위한 수동적 교육이 아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활동중심의 능동적 교육으로 변화하게 된 것임.

- 기술의 발달에 따라 AR·VR 등을 활용한 전시기법의 등장, 관람객의 감각 확장 및 상호작용 체험 등이 가능하게 되었음. 전통적인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와 동영상, 3D 입체영상 등을 활용한 가상현실, 실감 콘텐츠 구현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같이 변화들에 따라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4. 박물관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방식

- 박물관은 유물 등 수집·보관하는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 이는 결코 변하지 않는 박물관 고유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역할들을 담당해야 함.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학습기관,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거점,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 등 그 역할은 점점 증가하고, 박물관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박물관은 인류의 유산을 보관하는 특수시설을 넘어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대중친화시설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II.

환경 분석(PES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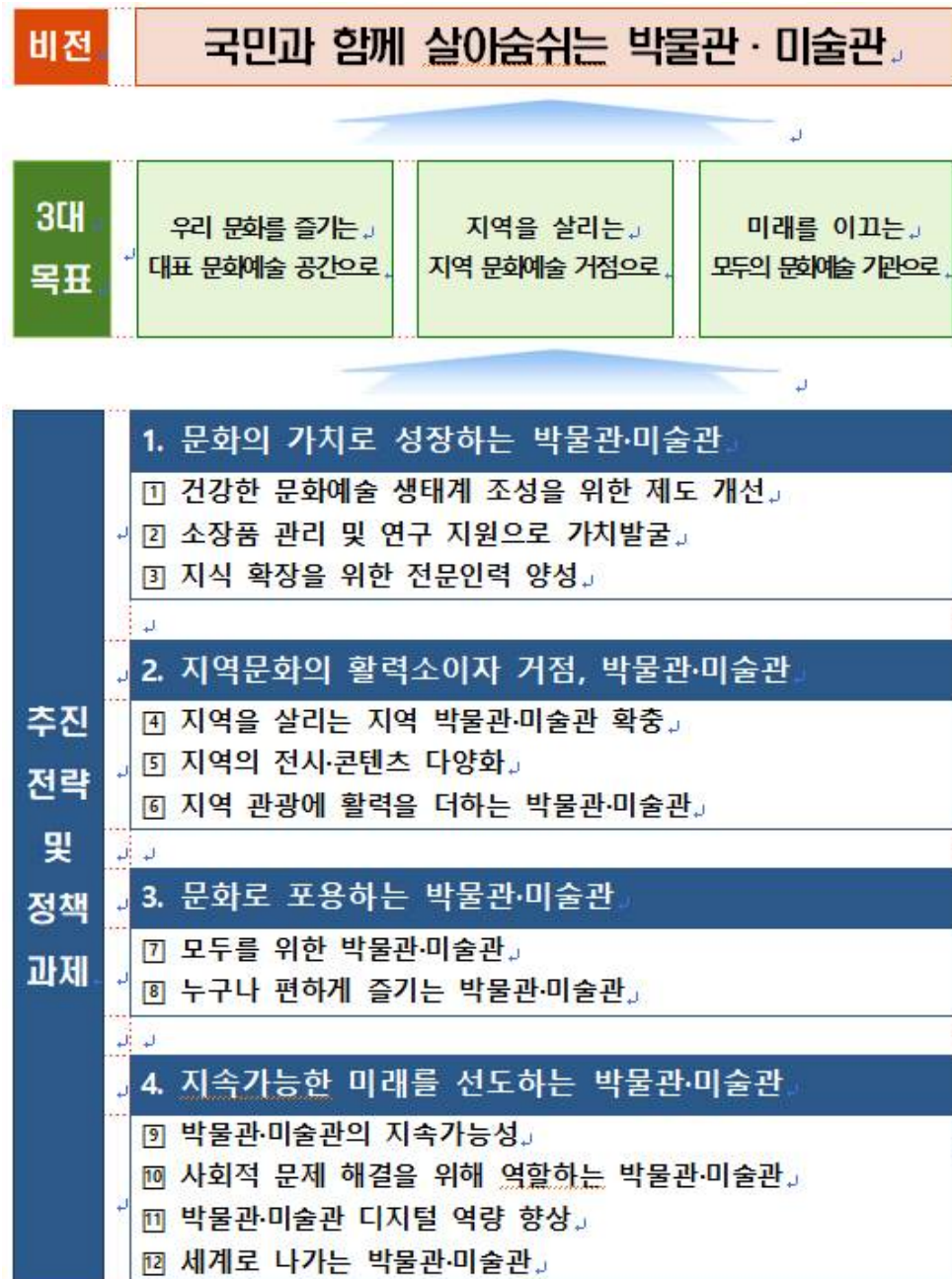
1. 정책환경

가. 중앙정부 정책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 따른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강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정비전을 제시하였음. 이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를 채택함.
- K-콘텐츠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컨트롤타워 설치 추진, 정책금융 지원으로 세계적인 콘텐츠 IP 보유기업 육성, 창작자 중심의 공정환경 조성, 저작권 보호로 문화주권 강화 등을 내세움.

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 수립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배포하였음. 이번 기본계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 살아숨쉬는 박물관·미술관'을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위한 3대 목표로는 '우리 문화를 즐기는 대표 문화예술공간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문화예술 거점으로', '미래를 이끄는 모두의 문화예술 기관으로'를 설정하였음.
추진전략은 총 네 가지로, '1. 문화의 가치로 성장하는 박물관·미술관', '2. 지역 문화의 활력소이자 거점, 박물관·미술관', '3. 문화로 포용하는 박물관·미술관', '4.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박물관·미술관'을 설정하였음. 각 추진전략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과제도 제시하였는데, 총 12가지에 이른다.



<그림 9>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2. 경제환경

가. 2025 국가경제 전망

○ 약화된 성장세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 부진 완화,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라 전년 대비 2.0% 낮은 1.6%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대외여건

상승하는 국제유가, 미국의 강한 성장세와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 증가 등으로 불안한 대외여건을 보이고 있음. 특히 미국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나. 문화·예술분야 관련 경제 전망

○ 산업구조의 변화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춘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음. 과거 경제 성장의 중심업종이 제조업이었다면, 이제는 지식정보산업·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였음.

○ 소비중심 사회로의 변화

위와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자 중심의 생산도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도시'로 사회의 성격 역시 변화하게 되었음. 특히 의·식·주 등 필수소비품목들 이외에 문화산업 관련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지표로 사료됨.

3. 사회환경

가. 문화·예술·여가의 향유기반 구축 필요

- 주52시간 근무제 완전 정착 및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따른 문화·예술·여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향유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글로컬(Glocal)' 개념의 정립 및 확산

'글로컬(Glocal)' 개념의 정립 및 확산에 따라 지역 고유의 콘텐츠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정체성 내지는 도시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요소인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나.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 사회

현재 대한민국은 출생률이 감소하여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임. 특히 2020년 이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음. 중장년층~노년층이 사회의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자리잡게 됨. 특히 전통문화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청년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는 문화복지 차원에서 이들의 취향과 수준에 맞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소멸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위와 같이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소멸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임. 국제교류가 활발한 현재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있음.

4. 기술환경

가. 정보(화)사회·지식기반사회

- 20세기 산업사회를 거쳐 21세기 초 정보(화)사회·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음. 이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정보와 지식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이를 생산, 소비, 유통하며 부의 창출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었음.
- 이에 따라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취사선택하고, 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게 되었음.
- 박물관은 과거의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며, 직접 방문해야만 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위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과거의 정보와 지식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음.

나. 4차 산업혁명 시대

-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 정보통신기술(ICT) 및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음.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기술 등은 박물관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러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의 성향과 패턴 등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으며, 새롭고 실감나는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음.

1. 강점

가. 대표성·상징성

- 강원감영이 소재하여 수부도시로서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원주의 대표 박물관으로서 2019년 법정문화도시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선정된 원주의 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표성,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전국에서 유일한 국보급 문화재 환수 사례인 법천사지 유적을 비롯한 불교유적과 강원감영 등 우수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나. 우수한 접근성

- 사통팔달의 도시적 특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우수함.

다. 문화유산팀

- 전국에서 유일하게 박물관에 문화유산팀이 함께 배치되어 있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기능을 박물관 학예기능과 결부시켜 활용하기에 용이함.

라. 우수한 관리운영 실적

- 2020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강원도 공립박물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최우수 공립박물관으로 인정받은 바 우수한 박물관 관리 운영 실적을 확보하고 있음.

마. 우수한 지역기반

- 인구소멸시대인 오늘날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인 원주가 가진 도시역량을 바탕으로 원주시 유일한 공립박물관으로서 발전 가능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음.
-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임윤지당 선양관, 반곡역사관 등 중요 분관을 인구 밀집 지역에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2. 약점

가. 미미한 인프라 확충

- 원주시를 대표하는 공립박물관이지만 지역 역사성을 도출하고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역할 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전시, 유물 관리, 교육, 홍보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임. 특히 최근 몇 년간 법천사지 유적전

시관, 반곡역사관 등 분관의 설립 운영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 봉산동 소재 본관의 환경에 대한 시설 확충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실정임.

나. 노후한 시설

- 전시공간과 전시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고 소장 유물 규모에 비해 전시 및 수장공간이 협소함.

다. 부족한 편의시설

- 원주시의 인구 및 방문객 규모에 비해 박물관 기능을 지원하는 부대편의시설이 부족하며, 외부공간도 협소함.

라. 낮은 부지확장성

- 시민들은 지역 내 문화적 역량과 연계하여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노후화된 전시 콘텐츠를 리모델링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담은 전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의 박물관 건물이나 부지 모두 확장성이 낮아 현 부지 내에서 요구되는 변화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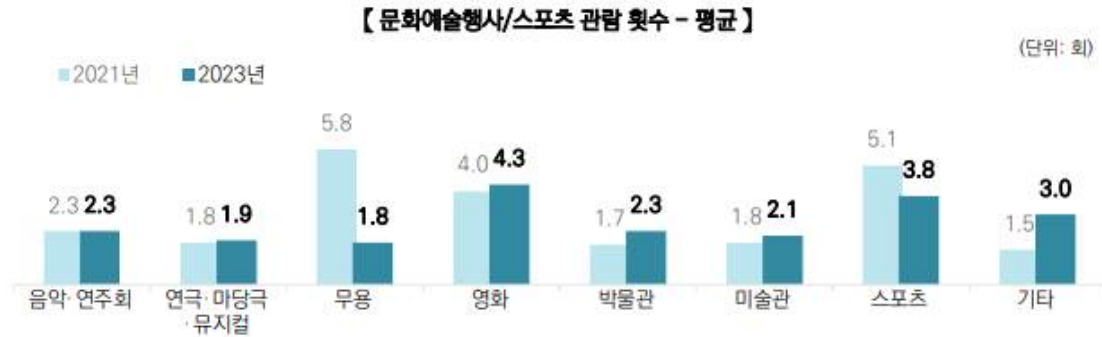
마. 낮은 광역연계성

- 박물관 위치가 도심에 위치하기는 하나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광역연계성도 낮아 시민들이나 원주시의 방문객들의 접근이 쉽지 않음.
- 함께 조직되어 있는 문화유산팀의 문화유산 운영 관리 업무가 학예 업무를 잠식하고 있음. 현재 원주시역사박물관의 예산구조상 대부분의 예산이 문화유산 관리 업무에 투입되고 있으며 인력의 부족으로 전시, 교육, 연구, 유물수집 및 관리, 홍보, 대외협력 등 박물관 고유 업무영역의 활성화가 어려운 구조임.

3. 기회

가. 문화 수요 증대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로 문화적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K-컬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박물관 뿐만이 아닌 지역소재 박물관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고 있음.



<그림 10> 원주시 문화예술행사/스포츠 관람 횟수
(2023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그림 11> 원주 문화여가활동(2023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나. 지역 문화생태계 혁신지원

- 정부의 지역문화진흥계획에 따라 특색 있는 지역문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문화생태계 혁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다. 박물관·미술관 진흥 지원

- 2023년 6월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정부주도로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은 2022년 국제박물관협회(ICOM)가 개정한 '뮤지엄'의 정의에서 새롭게 강조한 포용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 등의 가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문화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고 있음.

라. 원주시의 지속적인 문화정책 강화

- 원주시 정책 방향 또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새로이 유입되는 인구증가를 통

해 요구되는 문화수요의 충족과 법정 문화도시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맞는 문화위상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마. 용이한 시민참여환경

- 협동조합의 도시 원주로서 문화유산의 재발견 및 역사문화도시 원주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 움직임이 활발하며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문화유산의 선제적 관리 및 보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바. 혁신적인 전시관람환경의 조성

- VR·AR과 같은 가상현실기술과 AI, 빅데이터 기술 등 박물관의 전시, 관람 환경 혁신의 기반이 조성되고 있음. 이는 중앙과 지역의 문화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4. 위협

가. 오프라인 관람 수요 위축

- 뉴미디어 사회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오프라인 관람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 있음.

나. 열악한 도내 지원

- 도내 문화지원의 지역적 편중이 심하여 원주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다. 이전계획 실행의 불투명

- 이전계획의 실행여부에 따라 중단기적으로 박물관 운영계획을 설정하기 어려운 환경임.

라. 부족한 인프라 및 예산

- 학예 부문에 대한 인프라 부족,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어려움.

마. 미흡한 인지도 형성

- 현재 법천사지 유적전시관과 같은 분관영역의 인지도에 비해 본관 운영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원주시역사박물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

바. 국립충주박물관의 건립

- 인근 지역의 국립박물관 건립으로 인해 주목도의 하락이 예상됨.

| | | | |
|--|--|--|------------------|
| S (강점) | <div>긍정요인</div> <p>대표성과 상징성 우수한 접근성 문화유산팀 우수한 관리 및 운영실적 우수한 지역기반</p> <div>내부요인</div> | <div>부정요인</div> <p>미미한 인프라 확충 노후한 시설 부족한 편의시설 낮은 부지확장성 낮은 광역연계성</p> | W (약점) |
| <div>외부요인</div> <p>문화수요증대 지역 문화생태계 혁신지원 박물관, 미술관 진흥 지원 원주시의 지속적인 문화정책 강화 용이한 시민참여 환경 혁신적인 전시관람환경 조성</p> O (기회) | | <p>오프라인 관람 수요 위축 열악한 도내 지원 불투명한 이전계획 실행 부족한 인프라 및 예산 미흡한 인지도 형성 국립충주박물관 건립</p> | T (위기) |

<그림 12> 원주시역사박물관 SWOT 분석

제4장 이전 계획 및 기존 시설 개선 방안

I. 이전의 당위성

1. 배경

- 1993년 '원주시박물관 건립계획' 수립, 1997년 건축공사에 착공, 2000년 원주시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음. 2003년과 2005년 각각 중앙전시홀과 전통문화체험실 증축하였음. 2010년 원주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2012년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하였음.
- 원주시역사박물관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 원주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와 함께 강원감영, 조엄기념관, 임윤지당선양관, 반곡역사관,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을 분관으로 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음.
- 2018년부터는 원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재계를 이관하여 박물관에서 원주시 전역에 산포하고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도시의 성장과 함께 박물관을 향한 지역사회의 요구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 도시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매장유산 발굴조사와 시민들의 각종 자료 기증 등으로 소장유물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박물관의 입지와 건물의 협소, 각종 편의시설 공간 부족 등으로 원활한 박물관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2. 기존 시설의 문제점

- 현재 봉산동에 있는 박물관은 원주의 인물인 최규하 전 대통령의 생가터라는 점, 대통령께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기부하셨다는 점 등에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부지 및 건물의 협소함
원주시의 역사적 위상·인구 및 방문객 규모 등에 비하여 부지의 규모가 협소함. 원주는 구석기시대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역사만으로도 통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5대 역사도시로 손꼽힐 만큼 큰 위상을 지니고 있음. 또한 현재 인구 약 36만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최대의 도시이며, 방문객 규모 역시 다른 지역 박물관에 뒤지지 않음. 그러나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장과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임. 또한 건물 자체도 협소하여 소장유물

수에 비하여 전시 및 수장공간이 상당히 부족함.

○ 제한된 활용성

원주시역사박물관의 건립계획은 1993년에 수립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97년 착공하여 2000년에 개관하였음. 현재를 기준으로 약 30여 년 전의 건축계획을 바탕으로 지어져, 25여 년 전에 개관한 것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주시의 역사·문화적 역량과 원주시민들의 눈높이를 30년 전의 계획에 따라 건축된 박물관 건물에 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 아무리 훌륭한 유물을 바탕으로 좋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시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됨. 이렇듯 활용성의 측면에서 현재 박물관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제한된 확장성

상기 이유들과 연계된 문제점으로, 확장성 또한 매우 제한되어 있음. 현재 박물관은 봉산동 주택밀집지역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음. 박물관을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은 저층주거지역으로 다세대 주택과 빌라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고, 남쪽과 동쪽은 고층주거지역으로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음. 부지를 확장해야 넓어진 부지 안에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새로 신축할 수 있는데, 토지보상·이전비용 등 주민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음. 박물관 건물이라도 확장할 수 있다면 좋겠으나, 건물 역시 이미 두 차례 증축을 하였고, 더 이상 증축할 만한 공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임.

○ 낮은 시민 접근성

박물관이 있는 봉산동은 원주시 구도심에 속하는 지역으로,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은 매우 떨어지는 편임. 현재 원주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명륜동, 무실동,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신축 아파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박물관에 방문할 경우를 살펴보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관광객들이 버스나 기차를 타고 원주에 와서 박물관을 방문할 경우도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원주시 대중교통의 열악함이 큰 원인이겠으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반면, 자가용을 이용하여 방문한다면 시간은 단축될 수 있으나, 승용차 32대·버스 2대만이 주차가 가능한 소형주차장을 가지고 있어 불편한 것은 별 차이가 없음.

| 출발 위치 | 소요시간 | 비고 |
|---------------|------|------------------|
| 명륜동 P아파트 2단지 | 38분 | 도보 6분 포함 |
| 무실동 J아파트 3단지 | 37분 | 1회 환승, 도보 3분 포함 |
| 기업도시 B아파트 2단지 | 47분 | 1회 환승, 도보 6분 포함 |
| 혁신도시 J아파트 | 24분 | 도보 17분 포함 |
| 버스터미널 | 23분 | 1회 환승, 도보 3분 포함 |
| 원주역 | 36분 | 1회 환승, 도보 12분 포함 |

<표 18>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한 박물관 방문시 소요시간
(네이버 길찾기, 평일 오전 11시 기준)

○ 제한적인 콘텐츠

건물 자체의 협소함과 노후화에 따라 전시실의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개선에도 한계가 있음. 즉, 건물의 구조 자체가 30여 년 전 전시구성에 따라 설계되어 있어 내부의 개선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공간적 제약이 있다보니, AR·VR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전시 콘텐츠들의 개발 및 제공에도 한계가 있으며, 큰 변화가 없이 반복되는 듯한 전시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II. 이전시행방안

1. 이전 시 고려할 점

가. 부지 및 건물의 확장성 고려

- 원주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증가가 증가하고, 도시가 성장한 곳임. 원주시역사박물관은 이러한 원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원주의 위상과 성장 전망에 걸맞는 부지와 건물을 갖추어야 함. 이는 현재 봉산동에 위치한 박물관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넓은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 향후 신·증축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생김.

나. 대내·외적 성장가능성 고려

- 박물관은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성장에 따라 점점 다양해지는 관람객들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해야 함. 따라서 향후의 대내·외적 성장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전시·교육·연구·교류 등 박물관 고유기능에 대한 다양화 및 다변화를 통한 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함. 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하며 외적인 성장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지속 가능한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고려

- 박물관은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원주시민들과 함께 해야 할 것임. 박물관에서 수집·보존·연구하는 고유한 역사·문화유산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하여 지속적인 지역문화자원을 발굴·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 지역사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박물관으로써 거듭 나야할 것으로 사료됨.

라. 수요자 중심의 공간 구성

- 유연한 공간 설계 : 방문객의 다양한 요구와 활동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
- 참여형 디자인 :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을 디자인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 향상
- 접근성 강화 : 모든 연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 적용
- 사례 :

-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SFMOMA)
재개관 시 방문객의 동선을 고려한 유연한 공간 배치와 다양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관람 경험 향상
-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전시 공간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박물관 운영 실현

2. 이전 시행방안

가. 이전신축 후보지 선정

- 이전 신축을 위한 박물관 입지선정의 평가기준은 접근성, 주변환경, 연계성, 확장성, 현실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교통 및 접근성, 주변의 다른 문화시설 및 시가지와의 연계성, 충분한 외부공간 확보에 따른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과학관과 미술관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는 (구)캠프롱 부지가 박물관 이전신축부지에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 구분 | 평가내용 | 비고 |
|------|---|----|
| 접근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 광역교통망 연계현황 및 차량 접근 편의성 | |
| 주변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시가지와의 연계성 ○ 일정 반경 내의 수요층의 밀집성 ○ 문화계 및 향토유적, 지역관광자원 등의 인접성 | |
| 연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부지 상위 및 관련계획 현황 ○ 인근시설과 시너지 창출 가능성 | |
| 확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에 활용가능한 부지 규모 ○ 증축가능성 | |
| 현실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확보의 용이성 ○ 부지규모 ○ 건립의 장애요인 (예산, 민원가능성, 시민불편 등) | |

<그림 13> 박물관 이전신축 후보지 평가기준
(원주시역사박물관 이전·신축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서, 2020.)

나. 시설계획의 수립

- 기존 박물관 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향후 박물관의 성장 및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전시관련 시설, 수장관련 시설, 교육 및 연구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시설, 관람지원시설, 설비지원시설, 기타공용공간 등 용도와 목적에 맞는 공간 구분과 개선된 시설확충이 필요함.

다. 이전신축계획의 확립 및 조속한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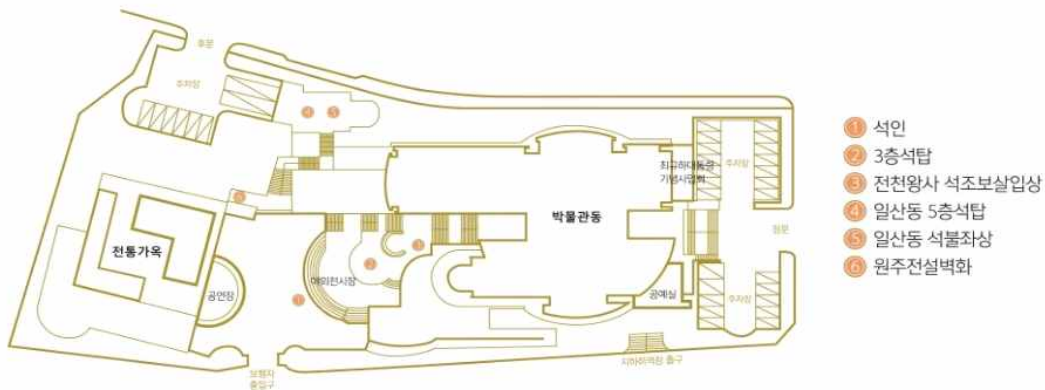
- 현재 봉산동에 위치한 원주시역사박물관에서는 부지 및 시설이 갖는 명확한 한계성 때문에 박물관 관련 업무의 개선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관람객 및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전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또한 이전신축에 따른 조직 및 인력구성에 대한 개편과 업무분장도 새롭게 정비하고, 조직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Ⅲ. 기존 시설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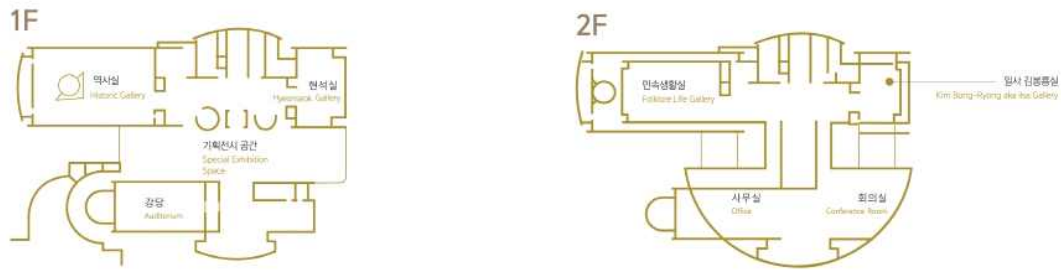
1. 기존 시설 현황

가. 본관 현황

- 박물관 본관 건물 내 주요 공간은 전시실과 수장고, 연구·관리실로 구성되어 있음.
- 전시실은 1층 역사실과 현석실, 기획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민속생활실, 일사 김봉룡실로 배치되어 있음.
- 수장고는 일반수장고와 특별수장고 2개가 있으며, 준비실·소독실 등 수장고에 부속된 4개의 실이 있음.
- 연구·관리실은 사무실과 회의실, 도서실과 자료실 등 8개 실이 있다. 이밖에 181㎡, 70석 규모의 강당이 있으며, 승용차 32대·버스 2대 주차 가능한 소규모 주차장이 있음.
- 이상의 현황에서 살펴볼 때 현재적 관점에서 박물관이 있는 대지의 면적이 협소하고, 전시사업 및 연구, 교육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어려운 환경임. 따라서 기존 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박물관 이전 시점까지 효율적 운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그림 14> 원주시역사박물관 부지현황



<그림 15> 원주시역사박물관 본관 건물 현황

2. 시설 개선 방안

가. 상설전시실 개선 방안

- 이전계획 시행 이전에 현재 1F 역사실과 2F 민속생활실로 구성되어 있는 상설전시실의 전시시설을 개편하여 전시관람 환경의 개선을 시행하여야 함.
- 상설전시실의 전면 개편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조명시설 일부 교체, 유물 교체 등 소폭의 개편으로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상설전시실을 개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나. 민속생활실 개선 방안

- 현재 역사실, 민속생활실 공히 조도가 현저히 낮은 관람 환경임. 이전에 계획되어 있는 현재 운영조건에서 노후화된 전시패널과 일부 멀티미디어 전시시설을 전면 개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조명 활용과 유물 교체 등을 통해 시설활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안이 필요함.

다. 기획전시공간 개편

- 기존 기획전시실이 현석실로 개편됨에 따라 로비 공간의 기획전시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음. 현재 환경에서 기획전시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박물관 전시 기능을 개선,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 야외전시공간 활용

- 현재 박물관동과 전통가옥 사이의 야외전시장 공간을 더욱 활발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부족한 기획전시공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야외전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진행을 활발히 하면서 박물관 이전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제5장 원주시역사박물관의 중장기 발전 방안

I. 원주시역사박물관의 비전과 정책 목표 도출

1. 비전 및 전략과제 도출

- 원주시역사박물관 비전 -

비전1. 원주 문화자산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역문화구심체

비전2. 원주의 역사유산을 통한 역사정체성 탐구를 위한 연구거점

비전3. 원주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공유를 위한 문화교육허브

- 원주시역사박물관 전략과제 -

1. 박물관 이전계획 수립 및 시행

- 현재 박물관이 위치한 봉산동은 한계성이 명확하여 적극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전신축이 반드시 필요함.

2. 조직 개편 추진

- 박물관 업무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문화유산팀을 시 본청으로 승격, 편입시키고, 학예연구팀 인력을 대폭 충원하여 박물관 본연의 업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인력충원 및 적절한 예산 배정

-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학예팀의 인력충원과 예산의 적절한 배정이 필요함.

4. 분관 활성화

- 원주시 관내 각지에서 운영중인 분관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5. 학예기능 강화 및 연구사업 확충

- 원주시를 대표하는 문화허브로서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학예연구기능의 강화와 지역 연구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6. 찾아가는 박물관 활성화

- 도심에 집중된 문화기능의 분산과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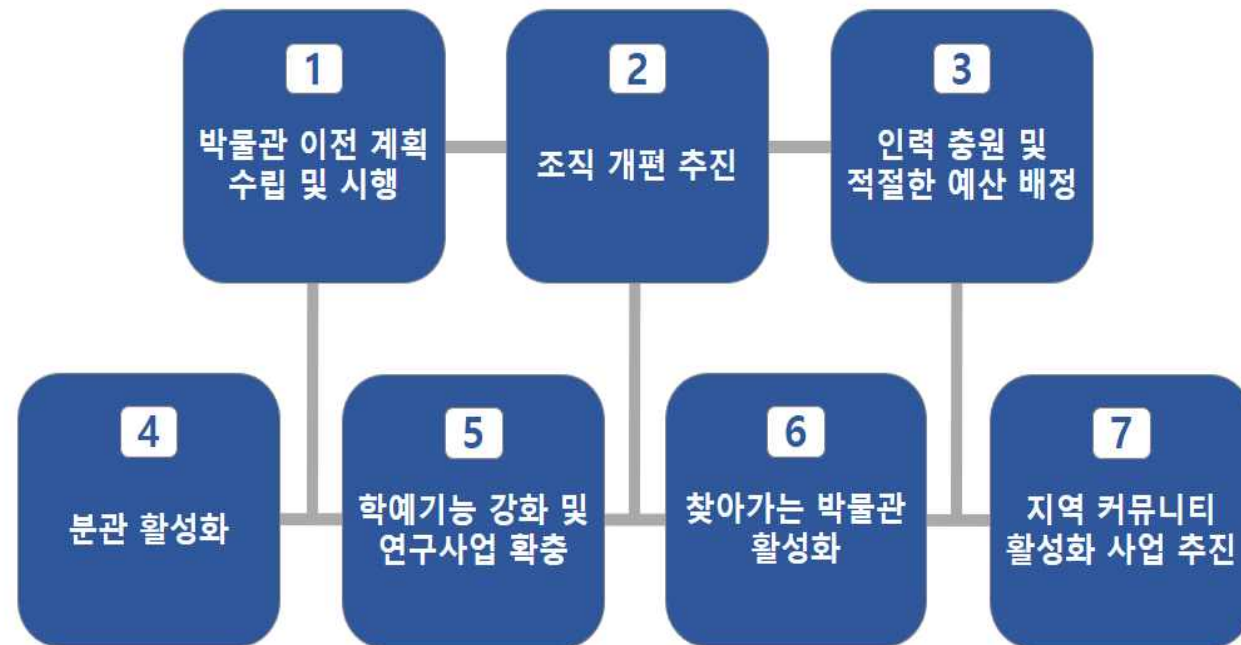
7.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시행

- 박물관 사업을 향유하는 애호가층을 중심으로 시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비전

1. 원주 문화자산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역문화 구심체
2. 원주의 역사유산을 통한 역사정체성 탐구를 위한 연구거점
3. 원주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공유를 위한 문화교육허브

전략과제



<그림 16> 원주시역사박물관의 비전 및 전략과제

2. 국립박물관 평가인증 평가지표

가. 평가인증 시행 배경

-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과 미술관 정책이 시설 건립 중심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건립 후 운영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해당 공간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도입한 평가제도임
- 2013년~2016년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으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시행이 의무화됨
- 2027년 등록 공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020년 국립박물관·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가 확대 실시됨

나. 평가인증 개요

- 국립박물관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질적 향상 유도를 목적함
- 평가 등록 후 3년이 경과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하고 인증기간은 2년으로 정함
- 평가는 시설현황, 사업현황, 사업관리, 관람객, 운영인력 등을 지표화하여 분야별로 평가를 진행함

다. 세부 평가인증 지표 체계 (5개 범주)

1) 설립 목적의 달성도 (15점)

- 운영계획의 적정성
- 운영관리의 적정성
- 박물관장 리더십
- 박물관장 전문성
- 내부구성원 이해도

2)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25점)

- 조직구성 적정성
- 조직구성원 역량강화
- 시설구성 적정성
- 시설관리 전문성
- 이용자 편리성
- 예산규모 및 배정·집행의 적정성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20점)

- 소장품 확보 노력
- 소장품 관리 적정성
- 소장품 보존 적정성
- 연구 및 성과 공유
- 일반인 대상 접근성 확장

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30점)

- 상설전시 운영
- 특별전시 운영
- 교육 프로그램 기획
- 교육 운영 전문성
- 문화향유 기회 확대(취약계층)
- 홍보마케팅 적극성
- 관람객 관리 적극성

5) 공적 책임 (10점)

- 법적 책임 준수
- 정책 이행 노력
- 네트워크 활성화(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 지역사회 협력 강화
-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라. 원주시역사박물관 평가인증 현황

- 전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에서 원주시역사박물관은 우수 인증기관에 3회 연속 선정됨
- 2023년에는 전국 267개 대상 인증평가에서 우수 공립박물관에 선정됨
- 모든 평가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고, 특히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분야에서 만점을 받음
- 세부 평가지표인 소장품 수집·관리, 연구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획득함
- 2020년에는 강원도 '최우수' 공립박물관으로 선정되었고, 당시에 모든 평가 영역에서 전국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음

마. 취약점 검토

- 2023년 평가인증에서 '공적책임' 분야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왔고, 이는 '관람객 관리' 항목으로 당시 코로나19의 여파는 비단 원주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친 요소였음
- 근본적으로 현재 정부의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 기준 설정에 문제가 있음
: 기관 운영 전반을 평가하되 박물관의 상대적 규모와 인력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였으나, 여기에 해당 지역 여건을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바. 개선 방향

- 현재 원주시역사박물관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36만 인구가 거주하는 원주시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그에 부합하는 규모와 인력이 평가인증에 상정되어 있지 않음
- 원주시역사박물관은 현재 갖춰진 열악한 여건에서 최선의 평가인증 결과를 확보 하였으나, 한편 장단기적으로 원주시의 인구와 도시 위상에 맞는 박물관 규모와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됨
- 아울러 원주시역사박물관의 위상은 새 박물관을 이전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제고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평가인증을 단계별로 수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3. 원주시역사박물관 예산활용과 평가지향

- 2024년 현재 원주시역사박물관의 총 예산은 87억 8,366만원. 역사박물관 운영에 약 13억원 투여. 전시 예산으로 9,000만원, 공모전 운영에 3,100만원, 박물관 교육에 4억 4,000만원이 배정되었음. 인문학강좌 사업 800만원,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운영 3억 6,000만원, 조사연구비로 9,600만원, 역사박물관 시설관리비용으로는 4억원이 편성되었음.
- 문화유산 관리에는 총 65억원 투여. 법천사지 보수정비 21억여 원, 주산리 유적 정비 8,000만원, 남한강 유적지 전시관 운영비 5억 7,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1억 7,000만원 등이 배정되었음.
- 원주시역사박물관 예산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유산 관리분야임. 박물관 본래의 기능을 학예연구팀이 추진하는데 반해 관련예산은 현상유지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시설투자와 학예연구사업의 확충을 위해 관련 예산의 확대와 적절한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내 인근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원주시역사박물관의 학예연구 분야 예산의 부족함은 두드러짐. 인구 8만 5천명의 속초시의 경우 속초시립박물관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28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는 사례와 대비됨.
- 춘천은 춘천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강원도 대표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강릉 또한 오죽헌을 중심으로한 박물관 특화 사업에 성공하여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과 차별되는 부분임.
- 따라서 지역문화구심체로서 지역정체성을 대표하는 원주시역사박물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고유기능인 학예연구분야에 아낌없는 예산지원과 인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됨.

II.

박물관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과 원주시역사박물관의 발전방향

1. 박물관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 변화

박물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은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현대 사회의 요구와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전환

- 박물관은 관내에 카페테리아, 서점, 아트 스툴 등 시민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콘서트, 무용 공연, 영화 상영, 시민 강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여러 사례)

나.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기술 도입

- 미국 USC 쇼아 재단은 'NDT(New Dimensions in Testimony)' 프로그램을 통해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대화하는 듯한 경험 제공

다. 개방형 수장고 도입

- 서울시는 서초동에 국내 최초의 '보이는 미술관형 수장고'를 건립하여 소장품과 복원 과정을 100% 공개하는 열린 미술관형 수장고 전시 계획 진행중
 - 원주시역사박물관 이전 계획에 일부 수장고를 개방형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라. 사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강화

- 최근 박물관은 전시와 학예직의 연구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교육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민속놀이, 음악회, 연극, 어린이 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

마. 메타버스 기반 박물관 운영

- 군산디자인박물관은 메타버스 기반의 운영을 통해 한국 고유의 디자인 원형을 디지털화하여 가상 공간에서 전시하고, 관람객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을 시도하고 있음

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국내 및 해외 박물관에서는 학예사가 직접 기획하여 설명까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살아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박물관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사. 지역 박물관의 통합 운영

- 부천시는 교육·유류자기·수석·활·옹기박물관과 펄벅기념관 등 6개 관을 통합하여 부천시립박물관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람객 편의 도모

아.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여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으며, 이는 박물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수집 제도의 변화

-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반응하기 위해 소장품과 수집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수집 제도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논의중

차.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

- 박물관은 전시와 학예직의 연구 기능 외에도 사회교육과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민속놀이, 음악회, 연극, 어린이 박물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역할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대학 수준의 인문 및 자연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

2. 인구감소·지역소멸시대의 박물관

박물관은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정체성을 지키는 역할 수행 필요

가. 작은 박물관 모델

- 작은 규모의 박물관을 여러 곳에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 주민 참여형 전시 : 지역 주민의 삶과 이야기를 전시로 기획하고, 주민이 직접 전시 기획 및 운영에 참여
- 지역 역사·문화 기록 사업 : 사라지는 지역 문화와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할 수행

□ 사례 - 일본 도야마현 '마을 박물관 프로젝트'

-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한 유물을 공유하고, 마을 전체를 박물관처럼 활용하

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고 방문객을 유치함

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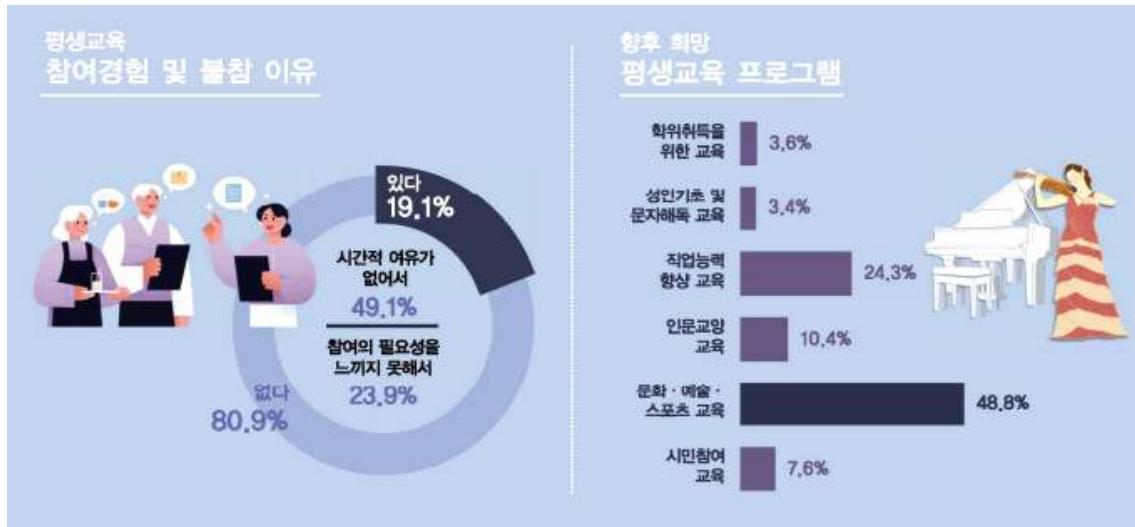
- 박물관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 역할 수행
- 지역 농산물·공예품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산물과 박물관이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기여
- 박물관 기념품 및 로컬 브랜드 개발 : 지역 장인과 협업하여 박물관 한정 기념품을 제작
-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 : 박물관을 지역 관광 명소와 연계하여 지역 전체의 관광 수익 창출
- 사례 - 프랑스 '르 루브르 랑스(Louvre-Lens)'
 - 루브르 박물관의 일부를 인구 감소 지역인 랑스에 설립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

다. 청년 및 이주민 유입 촉진

- 박물관을 활용하여 청년과 이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박물관 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 문화·예술·관광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
- 문화예술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예술가, 연구자 등이 지역에서 활동하며 박물관과 협력하도록 유도합니다.
- 다문화 커뮤니티 거점 역할 : 이주민과 지역 주민 간 문화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 사례 -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현대미술관'
 - 미술관을 거점으로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

라. 지역 교육 거점으로 활용

- 학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박물관이 지역 내 교육 중심지 역할 수행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역사, 예술,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학교와 연계한 체험 학습 제공 :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교육 보완
- 어르신 대상 교육 프로그램 : 노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해소
- 사례 - 영국 런던 '과학박물관'
 -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연결됨



<그림 17> 평생교육 경험(2023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마. 지역 재생 프로젝트와 협업

- 박물관이 지역사회 재생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 진행을 만들어 나갑니다.
- 유휴 공간 활용 박물관 운영 : 폐교, 폐공장 등을 활용하여 박물관을 운영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공공 예술 프로젝트 진행 :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공공 미술을 활용한 지역 재생 프로젝트 진행
-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개발 : 지역 환경과 연계한 생태 박물관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유도
- 사례 - 독일 '츠볼프 아포스텔 공공 예술 프로젝트'
 - 박물관과 예술가들이 협업하여 공공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킴

바. 박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단위 박물관들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보다 협력하여 운영 효율성 높임
- 광역 단위 박물관 네트워크 구성 : 여러 지역 박물관이 협력하여 공동 전시, 학술 연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박물관 간 소장품 교류 : 유물 대여 및 공동 전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 박물관 간 디지털 자원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박물관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
- 사례 - '유럽 박물관 협력 네트워크'

- 유럽 내 여러 박물관이 전시·교육·연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사. 시사점

-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시대에 박물관은 단순한 유물 보관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중심 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함
- 디지털 기술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 유입, 평생교육, 지역 재생 프로젝트와의 협업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
- 박물관이 이러한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면,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지역을 되살리는 중요한 허브가 될 수 있음

3. 디지털 전환시대의 박물관

가. 디지털 기술 활용한 박물관 운영

- 물리적 공간에 의존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관람객 유치
- 온라인 가상 박물관 구축 : VR·AR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박물관을 체험
- 메타버스 박물관 도입 : 가상 공간에서 박물관을 운영하여 지리적 한계 극복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지역 문화와 역사 자료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전 세계에서 접근

□ 사례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콘텐츠'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도 박물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 중.
- 미래형 첨단 기술 기반의 실감형 디지털 전시 서비스 강화. 상설전시 온라인 전시관에 VR영상을 추가 제작하여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여 박물관을 찾지 않고도 전시물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박물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도모
-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전시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가치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
- 원주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에 대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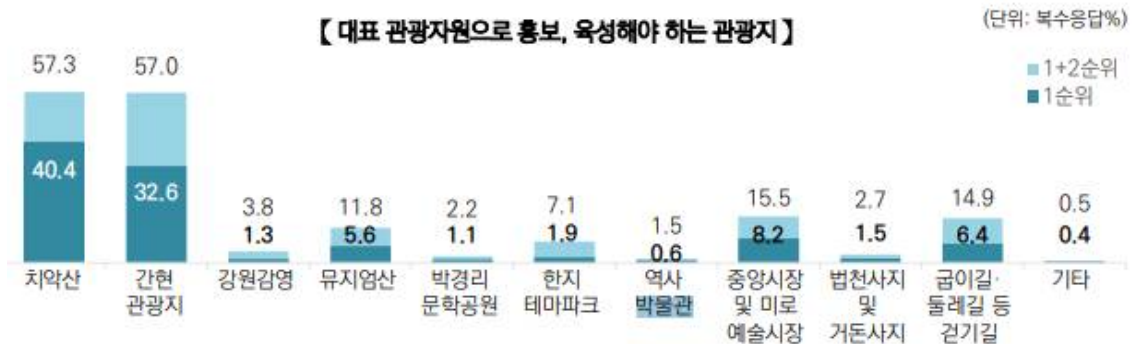
4. 지속가능한 박물관의 가치와 역할

가. 제기 배경

-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은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바 공적사회기관으로서 박물관도 예외가 아님.
- 과거 박물관이 단순한 문화재 보존 및 전시 기관으로 기능했다면, 오늘날의 박물관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공공 기관

으로 변화하고 있음.

- 지구적 차원의 생태위기가 계속 악화되면서 생태적 전환의 요청이 절실한 바 생명문화를 추구하였던 원주시의 정책은 그 가치와 역할에서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원주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질적·양적 자원 등을 상당히 보류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원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증가되는 추세



<그림 18> 원주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홍보·육성해야 하는 관광지
(2023 원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 문화자원이나 관광인프라에 비하여 문화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하여 지역문화차원이나 지역문화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발굴이나 산업화 여건 조성여전히 절실한 과제로 대두됨
- 문화기반시설과 공간, 문화제 지원, 지역축제 등에서도 도내 춘천·강릉지역보다도 열악한 실정
- 주거인으로서 젊은 세대주 · MZ세대가 대거 영입되는 실정에 비추어볼 때, 이들의 생활패턴을 참조한 문화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 '위라벨', '소확행' 추세에 대응하여 도시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활용에 따른 문화행사의 다각적 운영이 필요
- 문화 랩(지도) 완성. 문학, 생태, 먹거리, 소공원, 스토리를 담은 역사 문화재의 적극 활용
- 기존 군(면)지역의 문화소외의식 해소 필요

나. 지속가능한 박물관의 가치

1) 환경적 가치 제고

- 박물관은 친환경적 운영 방식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박물관이전 이후 신축박물관에 건축 설계, 에너지 절감형 전시공간, 탄소 발자국 저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환경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기획 전시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여 재활용하고,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기반의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박물관으로 거듭되어야 함.
- 기존 전시시설 정비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설계하고, 전시 및 보존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도모
-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조명 사용, 전시물 보존을 위한 자연 환기 시스템 적용, 재활용 가능한 전시 구조물 활용 등의 실천을 모색해야
- 원주역사박물관이 무장애(배리어프리) 관광지로 선정되도록 장애인, 노약자는 물론 일반 방문객까지 시민 누구나 관람하기 쉽도록 동선배치를 개선
- 사회적 약자의 관람 편의를 위한 전시 안내물을 확충
- 저시력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큰 글자 유물설명서를 각 전시실에 확대 비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리플릿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
- 원주와 인근 강원도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순수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관람 서비스의 개선 모색. 상설전시 외국어 도록을 업그레이드하고 외국인 관람객에게 맞춤형 추천 관람코스를 개발하여 제공

2) 사회적 가치 제고

- 중부권 주요 도시 및 강원도 최다 인구수용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포용성과 교육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함.
- 도시의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 집단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 이를 통해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생활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프로그램의 운영, 이주민·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 적응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평생 교육 과정, 정신 건강을 위한 예술 치유 프로그램 등의 도입을 적극 모색.
- 혁신도시 소재 공기업의 문화연수 프로그램과 지속가능한 세미나 프로그램과 강사 및 공간 제공
- 관내 초·중·고교생을 위한 문화강좌, 문화재답사 프로그램 시행

3) 경제적 가치 제고

- 박물관은 관광 자원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장기적인 생존력을 확보하도록 모색

- 조례입법 개정을 통해 입장료, 기부, 공공 지원 등을 조합한 다각적 재정 모델을 구축하여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
- 중앙정부와 중앙 문화관련기관·한국연구원 광역지자체의 국가과제에 응모하고 연구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
- 지역 내 연구 집단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및 공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

다. 지속가능한 박물관의 역할

1)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의식 고양

-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 소외, 그리고 계층이 합쳐진 용어로 문화로부터 감정적으로 단절되거나, 무력감 또는 무의미함, 고립을 겪거나 격리된 집단을 의미함. 문화소외에 대한 개념은 문화권(cultural right)이 인간의 기본 권리 중의 하나로 인정된 시점부터 등장하였음.
- 유네스코는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을 통해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인간의 기본 권리로써 문화권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음.
- 1966년 '세계 인권선언 규약'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을 선택하면서 '문화생활에 관여하고, 과학적 진보와 그 적용을 통한 혜택을 누리며, 자신이 만든 어떤 과학, 문학, 예술 상품으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누릴 자유'를 명시하여 문화적 권리 보장을 토로하였음.
-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문화적 권리로 인정되면서 문화의 보전과 참여에서 배제된 계층을 문화소외계층으로 범주화하기 시작하였음.
- 문화예술 접근의 장애요인과 구체적 대상

| 장애요인 | 대상 |
|-------------------|----------------------------------|
| 경제적 요인에 의한 문화소외계층 | 저소득층(사회경제취약계층) |
| 신체적 요인에 의한 문화소외계층 | 장애인 |
| 일시적 격리에 의한 문화소외계층 | 소년원 수감 청소년,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
| 문화적 요인에 의한 문화소외계층 | 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 복합적 요인에 의한 문화소외계층 | 독거노인, 복지시설의 아동과 노인, 한부모가족 |

<표 19> 문화소외계층의 장애요인과 그 대상

- 이처럼 다양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기임. 원주도

원도심지역과 신도심지역 간의 문제, 농촌지역의 소외 및 난개발 등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문화 인프라의 도시집중, 교통과 정주의식의 불만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불만을 해소시키고, 원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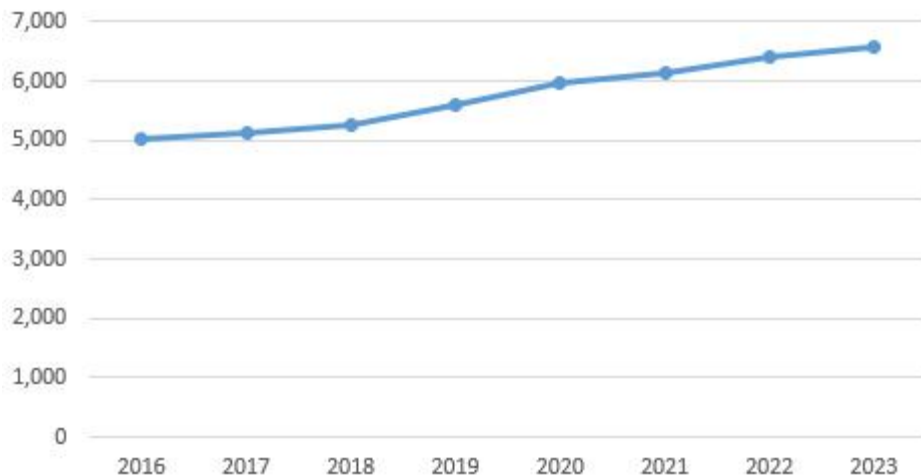
- 도시지역은 시민문화단체의 활동 등으로 각종 주민대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권장하고,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내 문화적 소외계층의 경우, 박물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 즉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향유와 전문적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은 이동식 박물관(Mobile Museum)의 개념임. 문화소외지역인 농촌지역의 보건소 및 마을회관 등에서 문화유산 및 작품 등을 관람하게 하고, 직접 만져보며 오감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음.
- 특히 원주시역사박물관은 강원감영, 조엄기념관, 임윤지당선양관, 반곡역사관,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등 원주시 관내 각 지역에 분관이 있어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에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각 분관을 비롯하여, 관내 보건소 및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순회전시, 강연 지원 등 지역주민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 지역거주 프로그램 운영보조자 발굴 활용, 자발성 유도과 경비 지급, 전통축제의 부활과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지역내 대학과 봉사 동아리와의 연계를 통해, 농어촌 및 문화소외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체험 교육 프로그램 시행하여, 학생들이 박물관을 직접 찾아오지 않고도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학예연구사가 직접 들려주는 우리 지역 역사 이야기 고고학, 인장, 민화 수업, 토기복원 및 인장 만들기·민화 에코백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및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인구의 증가와 다문화가정의 등장에 따른 대안 모색

- 원주의 경우도 고령사회로의 진입 역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의 노인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른 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만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됨. 즉, 당면한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이며, 총체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런 점에서 고령사회에서 실

버세대에 대한 문화적 접근은 매우 중요함.

- 실버문화의 거점으로서의 박물관 기능 강화와 새로운 영역의 관련 문화 활동 사업을 심도 있게 계획하고 발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원주도 이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했음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대책 및 해결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를 비롯한 외국인 문제를 문화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준비가 필요함. 효율성과 상업성의 추구가 아닌 박물관의 공공성에 비추어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문화적 배려와 외국인들의 문화정체성 보호 및 문화 활동 보장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보다 잘 할 수 있다는 특성이 고려



<그림 19> 2016년~2023년 원주시 다문화가구수
(KOSIS, 읍면동별 다문화가구 현황, 한국인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자녀, 기타동거인 합계)

- 지속가능한 박물관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
- 수요자 중심의 공간 구성, 돌봄 교육, 지역 문화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전략을 채택 필요

3) 지역 사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공동체 형성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
- 지역 예술가와 협업하여 주민 참여형 전시를 기획
- 동·면지역 지역 사회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
-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입장 프로그램
- 돌봄 교육 프로그램

- 다양한 연령층 대상 프로그램 :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사회적 약자 배려 :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포용성 강화
- 정서적 지원 : 예술 치료 등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의 정신적 건강 지원
- 사례
 - : 국립중앙박물관
 -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인 '병풍 속 동화세상'을 운영하여 장애 아동들도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영국 맨체스터 박물관
 -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미술로 기억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작품 감상을 통한 정서적 지원 제공

○ 지역 문화와의 연계

-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 :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지역 문화 홍보
- 지역 역사와 전통 보존 :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기록하고 전시하여 지역 정체성 강화
- 커뮤니티 프로그램 :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나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역 사회와의 유대 강화
- 사례
 -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스리랑카 문화의 날 행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주민과 이주민 간의 통합 도모
 - : 경기도박물관
 -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문화영화 상영'과 '전통 민속놀이 공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

○ 박물관은 수요자 중심의 공간 구성, 돌봄 교육, 지역 문화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 실현 필요성

○ 박물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적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방문객의 요구 충족 필요

1. 내부적 과제 및 개선 요구

가. 박물관 업무증가로 인한 조직개편 필요

- 학예팀과 문화재 팀의 2원화와 예산의 문화재 관리분야 집중에 따른 운영과 재정분야의 경직성 해소
- 5급 관서 3개 담당을 5급 관서 4개 담당으로 확대 개편 추진 필요
- 다수의 지역문화재와 유물 관리 외에 새로운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학예인원 확보의 문제제기
- 남한강사적전시관팀 신설을 통한 법천사지유적전시관 운영 강화
- 반곡역사관, 임윤지당열선양관, 조엄기념관의 전문성 강화
-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전통문화교육원 운영과 교육 기능 강화
-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관리할 문화전사로서 담당자 존재 필요
- 관련 자료 수집 및 체험교육프로그램 추가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증가가 요구

나. 박물관 자료 증가로 인한 수장시설 포화

- 시민의 자료 기증 활성화로 유물수량 대폭 증가
- 박물관자료의 지속적인 구입으로 수장고 공간 부족
- 신축이전공간 확보 필요
- 국립박물관 수장고 유치 필요

다. 디지털 시대 박물관 전시기능의 활성화

- 자료의 디지털화 및 대국민 공개 요구 증대
- 다양한 콘텐츠의 신속한 서비스에 대한 민원 증가
- 도시 속 박물관 이미지의 지속적인 개선
- 박물관 수집 자료 및 사진 자료 아카이빙 전시 모색

라. 지역사회의 새로운 변화

- 원주시 역사박물관 신축 건립 논의 및 기존 박물관 활용방안 모색
 - 도시 팽창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이용자 증가
 - 혁신·기업도시 이주민 등 타지역 유입인구를 위한 서비스 준비
 - 맞벌이 및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요구 증가

-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으로 사회 변화
 - 노인인구 증가, 어린이 감소에 따라 전시·교육 프로그램 대상 변화
 - 고령자를 위한 아날로그적 학습 및 서비스 확대 요구
- 지역 내 소규모의 박물관 및 기타 전시관의 지속적 증대
- 평생교육원, 한지테마파크, 박경리문학공원과 업무 차별화
- 외국인 관광객 및 관람객 지속적 증대
 -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 개선 필요성
- 박물관 및 문화재 용어의 표준화 필요

마. 원주시역사박물관 특성화

- 안정적으로 관람객을 모집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활성화 노력
- 독창적이고 특성화되며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함
- 신축을 통해 교통과 환경인프라가 구축되도록 노력 경주

2. 원주의 역사유산을 통한 역사정체성 탐구를 위한 연구거점

가. 지역 역사 정체성을 탐구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연구거점

- 지역의 역사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며 연구하는 과정에서, 박물관은 지역 주민과 학계, 정책 결정자들이 함께 역사적 정체성을 논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으로 위상정립
- 역사유산의 수집 및 보존
 - 박물관은 지역의 유물과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함으로써, 물리적·정신적 역사유산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
 - 이는 지역 공동체가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 연구 및 학술 활동의 중심지
 - 지역의 역사유산을 연구하는 학자, 박물관 연구자, 학생들에게 박물관은 중요한 연구 거점
 - 이를 통해 지역사의 공백을 메우고, 기존 역사적 해석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
 - 박물관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학술 세미나, 워크숍, 발굴 프로젝트 등을 주도

나.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및 교육

- 박물관은 단순히 연구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문화 기관
 -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운영
 - 지역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시민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 이를 통해 박물관은 지역사회를 결속하는 역할 수행.
- 역사적 내러티브 구축과 정체성 강화
 - 박물관은 전시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전달
-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외부 방문자들에게 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역할 수행

다. 지역 개발 및 관광과의 연계

- 역사유산을 활용한 박물관의 연구 및 전시 활동은 지역의 관광 산업과 연결
-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역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박물관 운영은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

3. 원주 문화자산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역문화 구심체

- 박물관은 소장자료를 단순히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하여 박물관 자체를 감각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
- 박물관이 자리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도록 함.
- 영월은 탄전도시에서 폐광도시로 변화하였으나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전 문박물관을 유지하여 22개의 공 · 사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국 향유형 복합문화도시로 변화함
- 영월이 폐광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며, 그 연장선에서 지역과 주민이 공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물관'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확보하였기 때문임
- 박물관 본연의 영역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도 능동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박물관 업무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학문으로 이용자와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유도할 필요가 제기됨
-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람객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

- 지역 예술가와의 협력: 지역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전시회를 기획하고, 예술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지역 예술의 발전과 홍보에 기여.
-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커뮤니티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문화 활동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지역의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외 관람객에게 지역 문화를 소개.
 - 박물관의 디지털화, 스토리텔링 도입, 박물관 포털사이트 운영 등의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원주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공유를 위한 문화허브

가. 문화허브로서 박물관의 역할

- 박물관은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유하는 '문화허브(cultural hub)'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 이는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해석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실현.
- 박물관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산시키는 중심지 역할 수행.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지역의 역사, 전통, 가치관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함.
- 시민들의 집단적인 문화적 기억의 저장소 역할을 수행함. 지역의 역사적 유물, 전통 예술, 생활문화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를 보존함.
- 원주의 전통 공예품이나 민속 문화 관련 전시를 상설화하고 특화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유지하고 계승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 문화 교류와 소통의 장
 - 지역 주민, 학자, 예술가, 방문객 등이 박물관을 통해 교류 활성화
 -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강연,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하여 참여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학술담론 프로그램의 활성화.
- 공동체 정체성 강화
 - 박물관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의 자긍심 함양에 기여.
 -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스토리텔링 프로젝트나 구술사(oral history) 기록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 운영.
-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
 -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유산과 스토리를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전 모색
 - 특정 동·면지역의 전통 축제와 연계한 전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외

부 방문객이 지역 문화를 경험하도록 유도.

나.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조사·연구·계승 중심기관

- '지역'이란 그 자체가 존재 이유를 가지는 지리적인 범위이자 그 역내에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세계관을 공유하는 곳
- 지역문화는 특정지역에서 오랫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유지되어 온 것이며, 그 지역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지역민이 선택하여 자기화한 가치관의 총합인 동시에 생명력임
- 지역민이 자연 또는 환경과의 부단한 접촉과정에서 형성한 생활능력의 총체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토대 위에서 배태된 결과물임
- 지역은 다른 어느 것에 우선하는 지역문화의 1차적 기반으로 역사와 문화현상을 결정하는 배경은 인간이라는 주체가 생각하며,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이끌어 가는 것임
- 지역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문화 가운데 오랜 역사를 통해, 현재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는 문화의 모습'이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정서와 분위기에 필적한다'면 그것이 지역의 전통문화·전승문화임
- 지역의 전통문화는 오랜 동안 지역민들에 의해 점검되고 평가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명력 있는 우리의 가치관이자 실질적인 모습임
- 지역의 전승문화를 계발시킨다는 것은 지역문화의 특수한 가치관과 생명력을 현재(미래)에 투영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발견하는 작업임.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지역민으로서 느끼는 동질성(지역성)과 공감대의 기반, 곧 '지역의 정체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전통문화의 형식적 보존만이 아니라 문화적 전통의 창조적 계승의 문제
- 지역문화는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공동체적 연대의식(결속력) 강화의 기반'이라는 고유의 의미에 더하여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사회의 경쟁력 확보 수단, 효과적인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 등 다용도의 전략적 목적으로도 활용됨

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및 선도 기관

- 원주에는 지역 내 문화와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 외에 대학이 존재하여 원주의 문화발전과 관광의 발전을 위한 여러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대학과 전문기관이 대단히 실용적인 의미로서 정책수립에 의의를 둔다면 이를 보급,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은 박물관이 되야할 것으로 판단됨.
- 박물관은 향후 지역의 문화와 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 상호 네트워크 관계를

갖도록 주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주도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박물관은 해당지역 관계기관과의 절실한 협력관계망을 구축해야 함. 박물관이 수집·조사·연구한 원천 자료콘텐츠를 문화재단에 제공하여 각종 축제·전시·공연 교육 등의 활동을 위한 연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 네트워크 구성은 지역, 기관, 인력, 사업, 정보, 공간 등의 수준에서 박물관이 주도해야 할 것임
- 지역 소재 대학과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사회단체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함. 박물관의 문화프로그램과 관내대학의 사회교육원(평생교육원)과의 연계가 필요. 양 기관은 강사섭외, 프로그램 구성, 공간활용, 홍보 등에서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라. 문화허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 지역 문화허브로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
- 참여형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지역 장인들이 참여하는 공예 시연, 지역 구술사를 반영한 인터랙티브 전시
- 디지털 기술 활용
 -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온라인 전시 등을 활용
 - 박물관 소장품을 디지털 아카이브화하여 온라인에서도 접근 가능하도록 세팅
- 다양한 지역 기관과의 협업
 - 지역 도서관, 학교, 예술 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
 - 지역 내 학교와 협력하여 역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예술가와 협업한 공공예술 프로젝트 진행
- 지역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박물관 운영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박물관이 공동체의 일부로 기능하도록
 - 주민들이 자신의 유물을 기증하거나 전시 주제를 제안하는 '우리 동네 전시' 프로그램 운영
- 문화허브로서 성공한 박물관
 - 핀란드 헬싱키의 '아모스 렉스(Amos Rex)':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지역 사회와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문화 허브로 운영됨.

- 일본 도쿄의 에도-도쿄 박물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현대적 방식으로 전시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 한국 제주도의 '제주민속촌': 지역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정체성을 강화.

5. 원주시역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로드맵

원주시역사박물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주시역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세부사업 로드맵

| 분야 | 전략 | 세부사업 | 단기 | 중기 | | 장기 | |
|-----------|-------------------|-----------------------|----|----|----|----|----|
| | | | 25 | 26 | 27 | 28 | 29 |
| 보존 | 박물관자료 보존 강화 | 실감형 전시공간 조성 | | | | | |
| | | 수장고 기능 강화 | | | | | |
| | | 인공지능 전시공간 구축 | | | | | |
| | | 첨단 기술 보안 인프라 조성 | | | | | |
| | | 지역 기록화 자료 강화 | | | | | |
| | | 박물관 자료 수집·보존강화 | | | | | |
| 교육/ 연구 | 체험 교육 및 연구 활성화 |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 | | | |
| | |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원주 학술 세미나·워크숍 개최 | | | | | |
| | |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 | | | | |
| | | 원주역사 및 문화유산 자료 구축 | | | | | |
| | | 시민 연계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확충 | | | | | |
| 조직/ 시설 | 운영강화 및 분관 내실화 | 분관시설 운영 조직 강화 | | | | | |
| | | 직원 전문성 역량 강화 교육 확대 | | | | | |
| | | 박물관 시설 편의성 강화 | | | | | |

| 분야 | 전략 | 세부사업 | 단기 | 중기 | | 장기 | |
|------------|--------------|-----------------------|----|----|----|----|----|
| | | | 25 | 26 | 27 | 28 | 29 |
| | | 박물관 이전신축 건립사업 추진 | | | | | |
| | | 지역 사립 및 대학 박물관 연계 강화 | | | | | |
| 홍보/ 서비스 | 홍보 마케팅 증진 | 박물관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활성화 | | | | | |
| | | 온라인 기반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 | | | |
| | | 언론 및 지역 연계 블로그 등 협력강화 | | | | | |
| | | 인공지능 연계 관람객 데이터 분석강화 | | | | | |

<표 20> 원주시역사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세부사업 로드맵

나. 연차별 추진 세부사업 예산집행 로드맵

(단위:백만원)

| 세부사업 | 산출근거 | 예산총액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실감형 전시공간 조성 | • 실감콘텐츠 개발 : 100백만원 | 100 | - | - | 50 | 50 | - |
| | • 체험·반응형 디지털 전시실 구축 : 500백만원 | 500 | - | - | 250 | 250 | - |
| | • 전시운영 강화 : 440백만원 | 440 | 70 | 70 | 100 | 100 | 100 |
| 수장고 기능 강화 | • 보존처리 :100백만원 | 100 | 20 | 20 | 20 | 20 | 20 |
| | • 수장고 보존시설 공사 : 200백만원 | 200 | - | - | 200 | - | - |
| 인공지능 전시공간 구축 | •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150백만원 | 150 | - | 50 | 50 | 50 | - |
| | • 온라인 플랫폼 전시 및 프로그램 운영: 10백만원 | 10 | - | 5 | 5 | - | - |
| 첨단기술 보안 인프라 조성 | • 박물관 보안 운영 : 44백만원 | 44 | 6 | 8 | 10 | 10 | 10 |
| | • 박물관 전시 안내 서비스앱 개선 : 30백만원 | 30 | - | - | 15 | 15 | - |

| 세부사업 | 산출근거 | 예산총액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지역 기록화 자료 강화 | • 박물관 자료 전자화 및 디지털 콘텐츠화 확대 : 175백만원 | 175 | 35 | 35 | 35 | 35 | 35 |
| | • 원주시 박물관 자료 기반 디지털 헤리티지 제작 : 100백만원 | 100 | - | - | - | - | 100 |
| 박물관 자료 수집·보존강화 | • 원주시 관련 자료구입 : | 440 | 70 | 70 | 100 | 100 | 100 |
| | • 기록물 관리 인력 충원(공무직) | 비 | 예 | 산 | | | |
|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 역사문화체험 교육 : 200백만원 | 200 | 40 | 40 | 40 | 40 | 40 |
| | • 공모사업 : 20백만원 | 20 | 4 | 4 | 4 | 4 | 4 |
| | • 어린이 체험사업 : 50백만원 | 50 | 10 | 10 | 10 | 10 | 10 |
| | • 전통문화교육원 운영 : 2,050백만원 | 2,050 | 410 | 410 | 410 | 410 | 410 |
|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학교연계 찾아가는 교육운영 : 50백만원 | 50 | 10 | 10 | 10 | 10 | 10 |
| 원주 학술 세 미나 · 워크숍 개최 | • 학술세미나 : 40백만원 | 40 | - | - | - | 20 | 20 |
| 인문학 프로그 램 활성화 | •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 30백만원 | 30 | 10 | 10 | 10 | - | - |
| | • 그림책 역사인물교육 : 42백만원 | 42 | 14 | 14 | 14 | - | - |
| 원주역사 및 문화유산 자료 구축 | • 고문서 해제사업 : 97백만원 | 97 | 19 | 19 | 19 | 20 | 20 |
| | • 학술총서 발간사업 : 126백만원 | 126 | 22 | 22 | 22 | 30 | 30 |
| | • 사료총서 발간사업 :126백만원 | 126 | 22 | 22 | 22 | 30 | 30 |
| 시민 연계 체 험 및 교육 프 로그램 확충 | • 박물관 리더 체험교육 : 30백만원 | 30 | | | 10 | 10 | 10 |
| | • 다문화박물관 체험교육 : 30백만원 | 30 | | | 10 | 10 | 10 |
| 분관시설 운영 조직 강화 | • 조엄기념관 운영 : 250백만원 | 250 | 50 | 50 | 50 | 50 | 50 |
| | • 임윤지당선양관 운영 : 200백만원 | 200 | 40 | 40 | 40 | 40 | 40 |
| | • 반곡역사관 운영 :424백만원 | 424 | 84 | 85 | 85 | 85 | 85 |
| | • 분관시설 운영 총원 | 비 | 예 | 산 | | | |

| 세부사업 | 산출근거 | 예산총액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
| 직원 전문성 역량 강화 교 육 확대 | • 세미나·워크숍 개최 : 20백만원 | 20 | - | 10 | 10 | - | - |
| 박물관 시설 편의성 강화 | • 박물관 시설 정비 : 200백만원 | 200 | | 100 | 100 | - | - |
| | • 박물관 시설 관리 운영 : 1,750백만원 | 1,750 | 350 | 350 | 350 | 350 | 350 |
| 박물관 이전신 축 건립사업 추진 | • 이전사업 용역 : 100백만원 | 100 | - | - | - | - | 100 |
| 지역 사립 및 대학 박물관 연계 강화 | • 사립, 대학박물관 연계강화 : 20백만원 | 20 | - | - | - | 10 | 10 |
| 박물관 홈페이지 개편 및 운영활 성화 | • 박물관 홈페이지 운영강화 : 23백만원 | 22 | 2 | 10 | 10 | - | - |
| 온라인 기반 홍보 및 마케 팅 강화 | • 홍보활성화 사업 : 15백만원 | 15 | - | - | 5 | 5 | 5 |
| 언론 및 지역 연계 블로그 등 협력강화 | • 언론 및 블로그 등 홍보 : 15백만원 | 15 | - | - | 5 | 5 | 5 |
| 인공지능 연계 관람객 데이터 분석강화 | • 인공지능 연계 전시 및 관람자료 데이터 분석 : 20백만원 | 20 | - | 10 | 10 | - | - |
| 총계 | | 8,216 | 1,288 | 1,474 | 2,081 | 1,769 | 1,604 |

<표 21> 연차별 추진 세부사업 예산집행 로드맵

제6장 종합 제언

○ 박물관 이전계획 수립 및 시행

- 현재 봉산동에 위치한 원주시역사박물관에서는 부지 및 시설이 갖는 명확한 한계성 때문에 박물관 관련 업무의 개선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관람객 및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전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이전신축에 따른 조직 및 인력구성에 대한 개편과 업무분장도 새롭게 정비하고, 조직을 보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이 이전신축계획을 잘 세워 장기 계획으로 실행한다면,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기관으로서 거듭나는 원주시역사박물관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박물관 이전신축 건립사업
- 현재 봉산동 소재 원주시역사박물관 부지와 건물은 박물관 이전 뒤 현재 박물관 전시실 가운데 하나인 현석실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전통가옥동과 함께 현석 최규하 기념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중부권 5대 역사도시로서 원주시가 가지는 위상을 적극 고려하여 국립 박물관 기능의 결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직 개편 추진

- 2024년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반환 등 원주시 문화유산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국가적으로도 '문화재' 개념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위상을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학예연구팀과 문화유산팀으로 조직된 박물관 업무체계를 효율화하여 장기적으로 문화유산팀을 시 본청으로 조직 승격·편입시킬 필요가 있음.
- 박물관은 전시, 연구, 교육의 박물관 본연의 업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고 학예연구팀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박물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인력충원 및 적절한 예산 배정이 필요함

- 2024년 현재 원주시역사박물관 예산구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유산분야임.
- 원주시 문화유산 전반의 관리 업무에 비해 위축되어 있는 박물관 고유기능 강화

를 위해 학예연구업무에 대한 예산 및 인력확대가 필요함. 이를 통해 역사문화 도시 원주시의 정체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원주시 향후 계획으로 캠프롱 부지 내 과학관, 미술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문화시설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들 시설과의 연계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학예연구팀의 인력충원과 적절한 예산배정을 통해 전시, 연구, 교육 기능의 강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분관 활성화**

- 원주시역사박물관 본원과 함께 원주시 관내 각지에서 운영중인 분관 운영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관 영역의 이전계획 시행 이전에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학예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관 영역의 적극적인 활용이 강조되어야 함.
- 현재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박물관 학예연구인력이 배치되어 종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원주 대표 문화 허브로서 학예 기능 강화, 연구사업 확충**

- 원주시를 대표하는 문화허브로서 원주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고취를 위해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학예연구기능의 강화와 지역 연구사업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읍면동리의 문화단위성 제고를 위해 면지, 동지 등 지역 세부 단위를 주제로 하는 연구사업과 편찬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찾아가는 박물관 활성화**

- 원주시는 시군통합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서 도농 복합의 넓은 영역을 관할하고 있음. 따라서 도심에 집중된 문화기능의 분산과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시행**

- 현재 원주시역사박물관이 지닌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박물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박물관 사업을 향유하는 애호가층을 중심으로 시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원주시역사박물관은 원주 문화자산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역문화**

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원주의 역사유산을 통한 역사정체성 탐구를 위한 연구거점으로 활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아가 원주의 문화정체성 확립 및 공유를 위한 문화교육허브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